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53호 【루계 제25927호】 주체107(2018)년 2월 22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김정은령도자 조선이 세계적인 군사강국이라고 천명》, 《조선 열병식을 통해 국력 시위》

세계언론들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인민군창건 70돐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된 소식을 8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세계언론들이 광범히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평양에서 열병식이 진행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여기에 참석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검으로서의 인민군대의 사명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고 천명하시였다.

수리아의 사나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열병식에 참석하시여 명절을 맞는 군대와 인민을 축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연설에서 조선이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되였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이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 싸움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침략자들이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도 침해하지 못하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꾸바의 프렌싸 라띠나통신, 봉쁠의 본짜메통신, 캄보쟈신문 《크메르 타임스》, 인디아의 인터네트통신 보이스 오브 밀리언즈, 인도네시아의 안따라통신, 신문 《꼼빠스》, 네팔신문 《머지두르》,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인터네트홈페지 《주체-네팔》, 타이신문 《방코크 포스트》, 중국의 신화통신, 환구망, 일본의 교도통신, 《도꾜신붕》, 《니홍게이자이신붕》, 《아사히신붕》, 《마이니찌신붕》, 중앙아시아인터네트통신 씨에이-뉴스, 로씨야의 인테르팍스통신, 신문들인 《이즈베스찌야》, 《꼼메르쌍뜨》, 《붕바라슈》, 즈베즈다TV방송, 로씨야 24TV방송, 렌떼웨TV방송, 인터네트잡지 《뗑쉬쉬》, 인터네트홈페지들인 《빠뜨리오띄 모스크바》,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스꼬의 인터네트통신 노빈끼, 뽈스까신문 《제츠뽀스뽈리따》, 프랑스의 AFP통신, 신문들인 《몽드》, 《피가로》, 도이췰란드의 페페아통신, 영국의 BBC방송, 미국의 AP통신, 신문 《유에스에이 투데이》, CNN방송, 베네수엘라의 신문들인 《엘 우니베르쌀》, 《올띠마스 노띠씨아스》, 《엘 푼도》, 인터네트신문 《MSN》, 텔레쑤르TV방송, VTV방송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봉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뽈스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탐구를 위한 국제친선발기, 이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화 및 친선협회, 에스빠냐 바스꼬주체사상연구소조, 브라질선군정치연구쎈터,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을 비롯한 광범한 세계언론들이 《북조선 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맞으며 열병식 진행》, 《김정은령도자 열병식에서 축하연설》, 《김정은령도자 조선이 세계적인 군사강국이라고 천명》, 《조선 열병식을 통해 국력 시위》 등의 제목들로 우와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언론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헌들과 동영상들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적현판들 로씨야에서 제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적현판들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로씨야의 하싼에 있는 로조친선각에 정중히 모셔졌다.

사적현판들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다녀가신 로조친선각 1984년 7월 1일, 1988년 7월 6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다녀가신 로조친선각 2001년 8월 18일, 2002년 8월 24일》이라는 글이 조문과 로문으로 씌여져있다.

제막식이 15일에 진행되였다.

연해변강행정부, 원동철도국, 울라지보스또크주재 외무성대표부 등 여러 단위 인사들과 군중들, 울라지보스또크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와 령사들, 해당 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적현판들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제막되였다.

참가자들은 꽃다발과 꽃송이들을 사적현판들에 진정하였다.

연해변강행정부 국제협조국 국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적현판들을 로조친선각에 제막하게 된것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오늘의 제막식은 쌍무관계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의 공고한 기초를 마련해주시였다, 로조친선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강화발전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베네수엘라 뚜빠마로혁명운동

평양선언에 서명

베네수엘라 뚜빠마로혁명운동이 력사적인 평양선언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에 서명하였다.

베네수엘라 뚜빠마로혁명운동 전국지도부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앞으로 보내여온 편지에서 이에 대하여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자

비료생산성과 계속 확대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나라의 위력한 화학비료생산기지인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증산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애국의 피끓는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충천한 기세로 증산돌격전을 과감히 벌려 비료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현대적인 물전해공정과 가스화공정을 정상운영하는데 힘을 넣어 여러가지 화학비료를 생산하는족족 사회주의농촌들에 보내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하겠습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 올해의 하루하루를 자랑찬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합경남도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고있다. 방송선전차와 기동예술선동대의 기동적이며 전투적인 경제선동활동이 활기있게 벌어져 분위기가 나날이 고조되고있다.

창모부에서는 지난해 방대한 설비집중보수를 진행한 성과에 토대하여 련속공정들사이 련계를 빈틈없이 맞물리고 공정운영을 과학화하여 년초부터 비료생산이 높은 단계에서 진행되도록 하고있다.

일군들은 전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모든 생산단위들에서 전력계통의 불량개소들을 제때에 찾아내여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한편 일군들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 과학기술사업을 짜고들어 전기를 극력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은 년초부터 비료생산을 정상화하고 주체화, 현대화된 화학비료생산기지의 위용을 더 높이 떨치는데서 크게 한몫 하고있다. 이들은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킬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자체의 기술로 꾸려놓은 암모니아합성촉매제생공정과 탄산가스정밀탈류촉매생산공정, 물정제용 이온교환수지제생공정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개선해나가고있다.

비료생산의 선행공정을 담당한 원료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여러가지 형태의 선별채들과 회전건조로의 지지로라들을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여 생산에서 큰 몫을 내도록 하고있다. 또한 과채공정을 새로 꾸려 생산성을 1.5배로 높인데 기초하여 기중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매일 수백t의 원료를 비료생산공정에 제때에 보장하고있다.

물전해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여러가지 기술혁신안들을 도입하여 전력소비를 현저 낮추면서도 전해조의 정상운영을 짜고들어 비료생산을 늘이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2질소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겨울철조건에 맞게 금수계통들의 보온대책을 면밀히 세우고 능력이 큰 압축기, 산소분리기들에 대한 순회점검을 정상화하면서 기술관리에 힘을 넣어 시간당 질소가스생산을 늘이고있다.

1, 2합성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비료생산의 심장부들 지켜선 영예와 책임감을 안고 암모니아합성탑의 운전조작을 과학화하는 한편 압축기를 비롯한 대형설비들의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마련하고 불비한 점들을 즉시에 수리정비하여 설비의 만가동, 만부하에 기여하고있다.

발생로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되돌이회리통에서 발생할수 있는 불량개소들을 제때에 퇴치하여 가스발생로의 정상가동을 원만히 보장하면서도 유효가스함량을 종전보다 5% 더 높이고있다.

뇨소직장과 질안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뜻깊은 올해에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또다시 돌파할 열의밑에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화학기계분공장과 보수분사업소아래 여러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부속품생산과 설비, 장치물수리보수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풀어나가면서 비료생산을 믿음직하게 뒤받침해주고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높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흥남로동계급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비료생산성과는 날이 갈수록 계속 뛰여오르고있다.

특파기자 김경철

새 수직갱건설공사 본격적으로 추진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유색금속광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목표밑에 심부지구에서의 광석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유색금속광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은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도 새로운 수직갱건설공사를 통이 크게 벌려나가기 위하여 전투목표를 높이 내세우고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련합기업소당조직에서는 해당 일군들로 강력한 지휘력량을 무어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대상공사가 힘있게 추진되도록 하고있다. 가까운 년간안에 유색금속광물생산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릴 비상한 각오를 안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간 당, 행정일군들은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에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지난해 선도굴진을 하면서 어렵고 방대한 권양기장갈착공사를 동시에 밀고나간 련합기업소에서는 지금 수직갱화장공사와 함께 콩크리트치기준비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있다.

수직갱화장공사를 맡아나선 갱건설사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현장의 구체적특성에 맞게 작업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유리한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해가면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이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굴뚝기와 비력처리 등 모든 작업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지난 시기 수직갱을 건설할 때보다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있다.

심부지구 광석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에서 갱건설사업소 로동자들이 종전의 경험과 기존방법에 매달리지 않고 앞선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갱화장공사속도를 높여가고있다.

검덕의 유색금속광물생산전망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마음한뜻이 되여 떨쳐나선 차광수청년돌격대와 2선광직장 로동자들도 비력처리작업에서 헌신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 앞당겨 완수

도안림산사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도안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15일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사업소당조직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낄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화선식정치사업이 벌어져 전투장의 분위기는 날로 고조되고 일터마다에서는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사업소의 일군들은 앙양된 대중의 열의에 맞게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갔다. 일군들은 모든 력량을 산지통나무생산에 집중하고 산판에 올라 이신작칙하면서 대중을 불러일으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였다.

산수작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기세좋게 내달리였다. 이들은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기계톱의 리용률을 높여 나무베기를 알세우고 통쏘이와 소발구에 의한 사이나르기를 많은 통나무를 쌓아놓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봉무부문의 로동자들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제기되는 부속품가공과 설비수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사업소가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본사기자 정경철

전력증산에 계속 큰 힘을

순천화력발전소에서

순천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생산돌격전, 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며 성과를 부단히 확대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불비한 발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여 전력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발전소에서는 전달에 이어 이달에도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20일현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천수백만kWh의 전력을 더 생산한 기세로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한길로 줄달음치고있다.

발전소일군들은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또한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활발히 벌려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피고있다.

열생산직장이 증산투쟁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떨쳐나선 직장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비상한 각오안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이들은 발전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입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타빈직장, 온탄직장, 하차직장의 종업원들이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타빈직장의 전력생산자들은 열손실을 극력 줄이는데 호기당 출력을 높이는 길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하차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석탄무림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이고있다. 운탄직장에서는 벨트콘베아들에 대한 설비관리에 모를 박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창의고안을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위훈창조의 불길은 전기직장과 화하직장, 자력갱생직장에서도 활활 타오르고있다.

과학기술에 전력증산예비가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전기직장의 일군들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걸린 문제를 앞장에서 풀어나가면서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발동하여 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고있다. 이들은 기술자들과 같이 주변압기의 통풍기예비전원계통을 새로 구성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좋은 성과를 거둔데 이어 계속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고있다.

화학직장의 종업원들은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 탈염수를 원만히 보장한 기세로 맡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자력갱생직장의 종업원들은 절사관철의 정신으로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주강물생산과 안불임생산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계속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오철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기관차수리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평양기관차대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쌍선체만능어선을 새로 무었다

남포대경수산사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나선 남포대경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나라 선박건조부문에서 처음으로 쌍선체만능어선을 무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두개의 똑같은 선체를 나란히 세우고 갑판을 일체화시키는 방식으로 무은 쌍선체만능어선은 하나의 선체로 된 배에 비하여 파도에 의한 흔들림이 적고 선체의 잠김면적이 작아 속도가 빠른것이 특징이다. 또한 갑판면적이 넓어 여러가지 작업기능을 갖출수 있는 우점으로 하여 선박건조분야에서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다.

사업소에서 기관출력이 큰 쌍선체만능어선을 무어냄으로써 두척으로 하던 저예망작업을 한척으로도 능히 할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 선박건조분야에서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화고한 기술적담보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전선에서 비약을 일으켜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이 펼친 황금해의 새 력사를 빛내여나가는데서 선구자가 될 비상한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남포대경수산사업소의 일군들은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전문배무이기지에서도 무어본적이 없는 쌍선체만능어선을 무을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남포시당위원회와 와우도구역당위원회의 일군들은 사업소일군들의 발기를 적극 지지해주고 화선선동의 집중포화를 돌이대면서 쌍선체만능어선을 뭇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지배인 박승일동무를 비롯한 사업소의 일군들은 지난해에 년간 물고기잡이계획을 상반년안으로 끝내기 위한 생산돌격전을 과감히 전개하는것과 동시에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견본설계도 없고 기술자료들도 부족한 속에서 배무이에 필요한 기술준비를 다 그쳤다.

배무이력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자재준비를 선행시킨 사업소의 일군들은 배무이전투에로 기술자, 기능공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일군들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오를 이끌면서 당정책결사관철의 혁명적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배무이작업반원들은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탐구도입하면서 선체선형을 기술적요구에 맞게 정확히 보장하였으며 조립전투를 60여일만에 결속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상확대식조립방법을 받아들여 배무이속도를 계속 높여나갔다.

사업소의 종업원들은 너도나도 떨쳐나 배무이전투를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과 남포시해사감독처의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은 배무이전투장에 달려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갔다. 의학연구원 종양연구소와 류경치과병원의 연구사들과 의료일군들도 현장치료활동을 적극 벌렸다.

사업소의 일군들은 쌍선체만능어선에 설치할 설비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현장지도를 짜고들었다. 배무이전투의 매 공정에서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 그 질적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넣었다.

웅장하고 정채한 자태를 드러낸 쌍선체만능어선에는 각종 설비와 저예망은 물론 뜨랄, 안강망 등 여러 어구장비들이 갖추어져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해안의 조건에 맞는 새로운 진수방법도 탐구하여 수백t에 달하는 배를 안전하게 진수시킬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철의 신념을 안고 배무이전투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사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서해안에서는 우리의 쌍선체만능어선이 때고동소리 높이 울리며 항로를 주름잡는 장쾌한 광경이 곧 펼쳐지게 될것이다.

특파기자 주향선

영원한 인민의 어버이

인민의 마음과 마음들이 혁명의 성산 백두산으로 끝없이 오르고있다.

흰눈을 떠인 웅건장중한 산악에서는 눈보라가 거센 폭풍을 안고 지동치며 천고의 밀림을 뒤흔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마루에 거연히 서시여 자신의 살붙이처럼 사랑하시던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보시는것만 같아 우리의 가슴 벅차오른다.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오늘도 인민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그래서 사람들은 그이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뜨락에 들어서며 이를 할수 없는 환희와 격정속에 따스한 봄의 훈향을 한껏 느낀다.

이 땅의 봄을 계절이 불러오는 봄이라고만 하랴.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우리 장군님의 영원한 품속에서 인민의 행복의 봄, 내 조국의 승리의 봄이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지금도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장군님의 한생의 업적을 합치면 인민뿐이라고 노래한 〈인민사랑의 노래〉를 들을 때면 한평생 인민을 마음속에 안고계신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눈물이 나오는것을 금할수 없습니다.》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우리 장군님의 한평생은 그 하루하루가 격정없이 되새길수 없는 감동깊은 사랑의 이야기들로 수놓아져있다.

어느해 여름날 지덕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무더운 날씨에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돌아오시는 길에 창광산에 올라 산책을 하시였다.

노을빛에 대지는 붉게 물들고 당중앙위원회청사에서는 당기발이 창공높이 퍼덕이고있었다.

그 기발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우리 당기는 바라볼수록 마음이 숭엄해진다고 말씀드리시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감회깊은 어조로 자신의 심정을 피력하시였다.

《저 펄럭이는 당기가 얼마나 좋소. 세월이 류수와 같다더니 우리가 조선혁명의 기치를 든 때로부터 벌써 40년이 가까와오고있소.》

계속하시여 자신께서는 위대한 스승이며 어머니인 인민의 성실한 아들이 되기 위하여 한평생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잊지 못할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이어 인민을 위해 헌신하실 의지를 이렇게 피놓으시였다.

인민대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인민대중을 열렬히 숭배합니다.

나는 근로하는 인민의 심부름군이다. 인민들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수령님의 좌우명이자 나의 좌우명입니다.

돌이켜보면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며 인민의 아들, 심부름군이 되시여 끝없는 로고의 길을 걸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지금도 이 땅의 어디서나 볼수 있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 절세위인의 한평생이 응축되어있다.

구호를 새길수록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일군을 부르신 사연이 되새겨진다.

농민들의 생활형편을 자상히 알아보기 위해 그 일군을 파견하시며 그이께서는 당부하시였다. 농촌에 가면 농민들이 자신을 안심시키느라고 생활의 불편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수 있는데 농촌일군들이 안내하는 집으로 가지 말고 아무 집이나 들어가 알아보고 오라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하여 일군은 마을에 들릴 때 맨 막바지에 자리잡고있는 농가들을 찾아 생활의 구석구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였다. 그때 어느 한 집주인은 당에서 농민들의 생활때문에 걱정하는것 같은데 자기들의 살림은 편찮다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마음을 놓으시라고 말씀드려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다.

돌아온 일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은 정말 좋은 인민이라고 하시며 그럴수록 우리는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더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그날의 감동이 얼마나 크시였으면 우리 장군님께서 후날 일군들에게 우리 인민은 생활에서 간혹 불편한 점이 있어도 타발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겠는가.

나는 이러한 좋은 인민을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자랑으로 여기고있으며 이런 인민을 위해서라면 한평생 밤잠을 자지 않고 일해도 힘들것 같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심장속에 새아박으며 일군들은 치밀어오르는 격정으로 가슴들먹이였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란 과연 어떤것인가를 폐부로 깊이 절감하는 순간이였다.

그 나날속에 우리 일군들은 인민의 참된 충복들로 자라났다.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한 길에서 눈비도 탈제 맞고 고생도 락으로 삼으시며 어떤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헌신하시였는가를 다는 알지 못한다.

이 나라의 첫 새벽문을 여시며 하늘아래 첫 동네로부터 문명연선의 마을에 이르기까지 그이께서 새겨가신 사랑의 자욱들이 별처럼 새겨져있다.

한해에 단 하루뿐인 생신날마저 잊으시고 오로지 이 땅 천만아들딸들의 행복을 위해 멀고 험한 길을 걷고걸으시였으니 일년 삼백예순다섯날은 그이께 있어서 인민을 위한 위대한 복무의 날들이였다.

그래서 인민은 격정을 터치였다.

인민을 찾고찾으시며 온 한해 인민의 집에 계신 아, 우리의 김정일동지이시라고.

인민의 어버이, 그것은 단순히 키워주고 보살펴주는 육친의 정을 뜻하는 부름만이 아니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의 정치적생명의 보호자가 되시여 마음속상처를 안고있는 사람이라면 더 정을 기울여 따뜻이 돌봐주고 삶을 꽃피워주시였다.

누구나 더듬어보시라. 그이께서 가슴앓이를 하는 자식들을 두고 속태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남모르는 고충도 헤아려보시고 상처를 가셔주신 이야기들은 그 얼마이런가.

꺼질줄 모르는 당중앙의 불빛, 그것은 이 땅의 마지막 한사람까지도 따뜻이 품에 안아 보살피시던 위대한 어머니의 정겨운 눈빛이 아니였던가.

그래서 그이께서 찾아오시면 떨어졌던 친부모를 만난듯이 신발이 벗겨지는것도 모르고 달려가 와락 안기고 친근한 그 영상만 뵈오면 로고의 천만리가 어려와 눈물부터 앞세우며 옷자락에 파고들던 우리 인민이였다.

해빛같이 환히 웃으시는 우리 장군님, 감격의 눈물을 걷잡지 못하던 사람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혈연의 화폭들을 새기며 우리 당의 력사가 흘러왔다.

우리 조국력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려 견인불발의 의지를 안으시고 만난을 헤쳐가신 잊지 못할 나날들로 엮어져있다.

설명과 오성산, 초도와 지혜산, 1211고지와 판문점…

정녕 다는 헤아릴수 없다. 그이께서 찾고찾으신 희천연의 고지들과 방선의 초소들은 그 얼마였던가.

진정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정과 사랑을 다하여 행복을 안겨주시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안아주신 위대한 어버이이시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민위천은 장군님의 한생의 좌우명이였다고 하시면서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뵈옵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려주신 만복의 씨앗을 풍성한 열매로 주렁지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의 손길아래 이 땅에서는 인민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력사는 끝없이 흐르고있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오고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과 맺은 정을 영원히 간직하고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곧바로 가고 갈것이다.

어버이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며 인민은 그 품에 길이 살리라.

본사기자 최 유 일

혁명의 만년재보

사자봉밀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억센 뿌리이며 만년초석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대 후반기 백두산지구에 조선혁명의 중심적령도거점을 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수많은 위성밀영들을 꾸리도록 하시였다.

사자봉밀영은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꾸려진 백두산지구 비밀근거지들중의 하나이며 사령부밀영의 보조밀영으로서 수령님께서 백두산밀영에 계시면서 자주 오시여 정치공작원들과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을 만나시고 회의도 지도하신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이다.

소백수골뒤에 길게 가로놓여있는 산을 사자봉이라고 불렀다. 사자봉은 사자가 누워있는것 같이 보인다고 하여 와사봉이라고도 하였다.

사자봉밀영은 소백수골에서 얼마 멀지 않은 사자봉기슭에 자리잡고있다.

사자봉밀영을 2호밀영이라고도 하였다.

이곳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던 사령부귀틀집, 출판소, 혁명적구호문헌들, 천막자리와 우등불자리 등이 있다.

주체25(1936)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사이에 건설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부대들이 장기적으로 주둔해있어야 하는 조건에서 이곳에서 휴식도 하고 훈련도 하며 다음의 작전을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고 밀영창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사자봉밀영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자봉밀영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그 당시 우리와 함께 항시적으로 지내지 않는 부대나 개별적사람들이 사령부에 찾아왔을 때에도 소백수골의 밀영에서 만나지 않고 2호밀영에 나가 만나주군 하였다. 2호밀영에서는 사령부를 찾아온 부대나 개별적인 방문객들을 맞아도 주고 쉬우기도 하고 떠나보내기도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에게 강습이나 훈련도 주었다. 2호밀영은 사령부를 찾아온 사람들의 접수소인 동시에 대기소이기도 하였고 면담소인 동시에 숙소이기도 했으며 또한 강습소인 동시에 훈련소이기도 하였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밀영에 계시면서 소부대를 파견하시거나 국내에서 활동하고있는 정치공작원들과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을 만나시거나 그들과의 모임을 가지실 때면 사자봉밀영에 나오시여 그들과 사업하시였다.

주체25(1936)년 11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자봉밀영에서 천도교 함경남도도정 박인진과 천도교대표들을 만나시여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서 전지해야 할 립장과 조국광복회에 천도교인들을 망라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으며 주체26(1937)년 7월 중순에는 정치공작원 및 지하혁명조직책임자회의를 조직지도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회의에 참석하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을 적극 보좌하시였으며 수령님으로부터 정치공작을 자립적으로 조직진행할데 대한 과업을 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산지구전공작전을 앞둔 주체28(1939)년 5월 상순 간백산밀영으로 가시던 길에 들려가신 사적도 깃들어있다.

사자봉밀영은 백두산지구 비밀근거지의 중요한 출판기지였다. 사자봉밀영의 출판소에서는 1930년대 후반기부터 조국이 해방되는 날까지 많은 출판물을 만들어내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을 비롯한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들을 해설한 여러가지 선전물과 각종 교양자료를 많이 찍어냈다. 출판소에서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을 출판한데 이어 《3.1월간》 창간호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정기간행물들과 소책자들, 제강과 해설자료 등 선전물들이 많이 나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치공작원들을 지방에 파견하시거나 지하혁명조직성원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곳 출판소에서 찍어낸 선전물과 교양자료를 주어 보내군 하시였다.

출판소에서 찍어낸 로작들과 여러가지 선전물들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 그리고 혁명조직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조국광복회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조국해방성전에 떨쳐나서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9(2000)년 3월 사자봉밀영을 돌아보시면서 사자봉밀영에 있는 구호나무들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장치를 잘 하였다고 하시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좋은 구호들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사자봉밀영은 백두산장군들의 항일혈전사와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며 혁명의 만년재보로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 인 선

혁명적구호문헌을 통하여 항일혁명선렬들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배우고있다.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에서— 본사기자 리 진 명 찍음

섬초소에 펼쳐진 사랑의 화폭

위대한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전선길에는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꽃펴나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그가운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외진 섬방어대를 찾으시여 뜨거운 온정을 베풀어주신 감동깊은 이야기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장군님의 모습은 영원히 지워질수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의 어느 한 섬방어대를 찾으신 날에 있은 일이다.

온 섬은 감격과 환희로 끓어번지였다.

그이를 뵙고싶은 마음은 자나깨나 간절했건만 이 험한 곳에 어찌 모시랴 하는 심정으로 날과 달을 보내온 섬초소의 군인들과 군인가족들…

그런데 그이께서 섬을 찾아주시였으니 그 품같은 일은 화산파도 같은 격정을 분출시키였다.

하지만 정작 영광의 시각을 맞이하고보니 전투근무성원들과 군인가족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도 없지 않았다. 이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게 되는데 그렇다고 진지를 어떻게 떠날수 있겠는가고 생각하는 근무성원들과 영광의 기념촬영에 참가할 군인들을 부러워하기만 하는 군인가족들의 눈가에는 저도모르게 눈물이 어리였다.

바로 그때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수행하여온 장령, 군관들이 전투복장을 하고 근무장소로, 마을로 달려오는것이 아닌가.

영문을 몰라하는 근무성원들과 군인가족들에게 사연이 전해졌다.

섬방어대를 찾으시기에 앞서 이곳 군인들을 위해 마음쓰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오늘 섬방어대에 가서 군인들과 기념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가시켜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기념촬영시간에 동무들이 경계근무를 대신 서주면 모든 전사들이 다 사진을 찍을수 있을것이라고, 살림살이하는 군관의 안해들과 부모들도 기념촬영에 참가시켜야 하겠다고 하시며 거듭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관의 가족들도 남편과 같은 혁명가들이며 결전의 시각이 오면 같이 싸울 사람들인데 기념촬영에 다 참가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념촬영에 단 한명이라도 빠진다면 그가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기념촬영과 관련한 조직사업을 잘하여야 하겠다고 당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섬방어대의 초소들에서는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이 병사들을 대신하여 경계근무를 서고 섬초소의 군인들과 가족들모두가 영광의 기념촬영장에 서는 사랑의 화폭이 펼쳐지게 되였다.

이윽고 촬영대로 다가오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대지휘관에게 군인들과 가족들이 다 참가하였는가를 다시금 알아보시고서야 환히 웃으시며 모두를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먼곳에 있는 자식들을 더 생각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외진 섬에 찾아오시여 한량없는 사랑과 온정을 부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섬방어대의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이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

거기에 어찌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섬방어대의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의 모습만 담겨있다고 하겠는가.

섬초소에 펼쳐진 사랑의 화폭에는 자애로운 어버이를 령도자로 모신 온 나라 천만군민의 행복한 모습이 그대로 비껴있었다.

본사기자 전 광 남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며

우리의것이 제일이라고 하시며

김 종 집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위인적풍모의 여러 측면에 대하여서는 이미 출판물이나 방송을 통하여 수많이 소개되여 세상이 다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해 9월 우리 공장을 몸소 찾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몸가까이 만나뵙고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으며 심장으로 느낀 몇가지 사실만은 꼭 사람들에게 알리고싶어 펜을 들게 되였습니다.

주체88(1999)년 9월 23일이였습니다.

한낮무렵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곧 우리 6월1일청년전기기구종합공장을 찾아주신다는 감격적인 소식이 온 공장에 전해졌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여러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셨다는 소식에 접할 때마다 우리 공장에도 그이를 모셨으면 하고 간절히 소원하던 우리들이였지만 영광의 그 시각이 정말로 이렇게 올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때서인지 나는 한동안 어쩔바를 몰라하다가 황황히 정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오후 1시 30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우리 공장 수자조종장치 수자분공장 함조립직장현관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따중나온 도당의 책임일군들과 차례로 인사를 나누신 그이께서는 인사를 올리는 나의 손도 따뜻이 잡아주시였습니다.

《지배인동무입니까. 수고합니다.》

잠시후 나에게서 공장의 실태를 초보적으로 료해하고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서 공장을 돌아보자고 하시며 조립직장안으로 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건물안으로 들어가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립직장을 환하게 꾸리고 조립대도 군대식으로 전개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습니다.

이어 조립대앞에 다가가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립중에 있는 제품들을 료해하시였습니다.

먼저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가정용전압조절기》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아주 잘 만들었다고 치하하시며 이렇게 절체기를 두개 달아 부하를 절반씩 감소시키면 파저전압의 《침입》을 받아도 텔레비존이나 랭동기들이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을것이라고 웃음담아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찌나 통속적으로 소탈하게 말씀하시는지 나는 어느새 긴장해졌던 마음이 스스로 풀리는것을 느꼈습니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한 전기제품을 가리키시며 이건 처음 보는건데 어디에 쓰자고 만들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이께서 물으시는 제품으로 말하면 《비상전원안전기》라는 전기용품이였는데 이것은 정전이 되는 경우 여기에 충전되였던 직류전원이 교류(220V)로 다시 변환되여 하던 작업을 원만하게 할수 있게 하는 사명을 수행하고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료해하고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비상전원안전기〉를 공장자체로 연구하여 만들었다는데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것 같습니다.

병원수술장들에서 수술을 하는 도중에 정전이 되는 경우 이런 〈비상전원안전기〉가 있으면 수술을 계속할수 있을것입니다. 모사전송기나 콤퓨터를 쓰는 단위들에도 이런것을 만들어주면 좋을것입니다.》

이어 외국에서 생산된다는 이 제품의 지속시간(불이 간 후 220V로 다시 방전되는 시간)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의것이 더 우월하지 않은가고, 비록 외형이 수입제처럼 대끈하지는 못해도 내용이 좋으면 그만이라고 하시며 더욱 기뻐하시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 그이께서 우리가 만든 제품을 두고 왜 그렇듯 기뻐하시는지 그 뜻을 다는 알수 없었습니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걸음을 옮기시여 배전반과 분전함을 조립하는 로동자들에게로 다가가시였습니다. 순간 나는 좀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이께서 공장에 오시면 우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을 다 보여드리고싶은 욕망에서 배전반과 분전함조립대도 차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개해놓고보니 나자신도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당시 강판이 걸려 빈 도람통과 자투리철판들을 잘라 만들다보니 정말 볼 모양이 없었습니다.

그런것을 그이께 보여드리자니 부끄러움에 앞서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이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내가 일을 쓰게 하지 못하여 제품이 볼품없다고 사죄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이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전기는 발전기에서 나오지 배전반이나 분전함에서 나오는것이 아닙니다. 나는 중소형발전소건물을 요란하게 짓고 배전반같은 부대설비들이나 번쩍거리게 만들어놓고 자랑하는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 최근 어느 곳에 가보니 요란하고 번쩍거리는 수입제배전반이 있었다고, 그런데 고장이 나서 가동하지 못하고있었을뿐아니라 거기에 필요되는 부속들도 없어 수리기일이 막연하더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자신께서는 뭐니뭐니해도 우리의것이 제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습니다.

《배전반의 겉모양이 곱지 못한것은 일없습니다.

낡은 도람통을 조개여 배전반과 분전함을 만든것을 보고 겉모양이 좋다느니, 나쁘다느니 시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가 폴아가 랭간압연강판이 나오면 분전함을 만들 소재같은것은 다 해결될것입니다.》

그제서야 나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볼 모양이 없는 우리의 제품을 보시면서도 왜서 기뻐하셨던지를 알게 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비록 볼 모양은 없다해도 우리 공장의 생산물들이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 로동계급의 심장속에 간직되여있는 자력갱생의 정신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여서 그렇듯 기쁨에 넘치셨던것입니다.

가구손잡이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기본제품을 만들고 남은 철조박들을 버리지 않고 8월3일인민소비품을 만들고있었는데 그 제품들중의 하나가 가구손잡이였습니다. 조립대앞에 이르시여 누런빛을 띤 고대색가구손잡이를 보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문득 나에게 이렇게 물으시였습니다.

《지배인동무, 가구손잡이를 나와 나누어쓸수 없겠습니까?》

그이께서 웃으시며 하시는 말씀이였지만 그 의미를 미처 몰랐던 저는 심중한 표정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무엇에 쓰시려는지 우리의것은 별로 좋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아니라고, 잘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이런 훌륭한것을 함흥사람들만 써서야 되겠는가, 나도 좀 가져가겠다, 가져다 평양시민들에게 주자고 한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습니다.

순간 나는 또다시 목이 메여오름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였습니다.

전기기구제품생산품정앞에 이르시여서는 조립중에 있는 개폐기 한개를 손수 만져보시며 이것만 있으면 농촌문화주택들에서 밥을 지을때에는 전기콘로에 련결하고 밥을 다한 다음에는 방을 덥히는데 쓸수 있겠다고 하시면서 몸소 쌍통개폐기로 그 이름도 지어주시였고 저락차발전소타빈과 농촌문화주택에서 쓸 전기밥가마를 보아주시고서는 우리의것이 아주 훌륭하다고, 농촌실정에 맞게 잘 만들었다고, 외국제가 왔다가 울고가겠다고 높이 격찬하시였습니다.

정녕 그이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낳은 우리의것을 가장 귀중히 여겨주시는 위대한분이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격정에 잠겨있는 나에게 앞으로 이런 훌륭한것을 많이 만들어 인민들에게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자신께서 앞으로 공장을 도와주겠으니 우리 함께 신심을 가지고 멋진 전기제품들을 만들어보자고 뜨거운 말씀도 해주시였습니다.

저는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의것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가를 똑똑히 절감할수 있었습니다.

그이께서 무리등생산공정앞에 이르시였을 때였습니다.

갓 조립된 무리등들을 바라보시는 그이의 얼굴에는 자못 만가와하시는 표정이 어리였다.

《6월1일청년전기기구종합공장은 무리등을 잘 만들어 여러번 평가를 받은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오래전부터 일 잘하는 공장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자애에 넘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조립중에 있는 가정용무리등 한개를 손수 들어보시며 확실히 이 공장은 무리등 만드는데서 전통이 있다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무리등 하면 이 공장부터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습니다. 그이의 과분한 치하의 말씀에 제가 어쩔바를 몰라하고있는데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1970년대초까지만 하여도 중요대상건설에 필요한 무리등은 다 다른 나라에서 사다썼습니다.》

그러시고는 기억도 새로우신듯 나지막한 음성으로 그러던것을 금수산의사당에 설치한 무리등부터 이 공장에서 생산한것을 가져다썼다고, 그후에는 나라의 중요대상건설에 요구되는 무리등을 다 이 공장에서 만들어 보장했다고 하시면서 평양지하철도역들에 단 무리등들은 물론이고 함흥대극장과 신흥판에 단것도 다 이 공장 제품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공장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평가하고 다른 나라에서 무리등을 일체 사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 공장 로동계급에게 주시는 값높은 평가의 말씀이였습니다.

잠시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전기조작기구를 만드는 공정앞에 이르시였습니다.

여러가지 전기조작기구를 만드는 로동자들의 작업모습을 대견스럽게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생각키우신듯 일군들을 향하여 자신께서 지난해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에 500대의 공작기계를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었는데 이 공장 로동계급이 어려운 속에서도 전기조작기구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였기때문에 희천에서 공작기계를 다 만들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 어떻게 되여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었는가고, 그 비결을 좀 들어보자고 하시는것이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저는 그이께 사실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 설비를 사러 갔을 때 우리를 비술하게 본 그놈들은 터무니없이 값을 엄청나게 올리더라는것, 그것이 너무도 괘씸하여 면담석상에서 우리는 너희들것을 사가지 않고 기어이 자체로 만들겠다고 했더니 어디 만드는가 보자는 식으로 코웃음을 치더라는것, 그래서 민족적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해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게 되였다고 말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의 대답이 만족하신듯 말을 잘했다, 그것이 자력갱생의 정신이다, 남을 넘겨다보는것은 망국의 길이라고 하시며 일군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같습니다.》

3 면 으 로 계 속

당조직들은 화선식정치사업으로 농업전선을 들끓게 하자

정신력발동의 비결－대중의 마음속으로！

배천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고있는 배천군당위원회의 사업이 주목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증산의 열쇠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적극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군당위원회의 작전과 지도에서 혁신적인것은 농장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하는것을 농업증산의 근본고리로 틀어쥐고 이 사업을 방법론있게 전개해나가는것이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양력설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31일 300여명의 군급기관 일군들이 일시에 농촌세대들을 찾았다.

이 사업을 조직하면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모를 박은 문제가 있다.

지난 시기 가정방문때에는 주로 일군들이 생활형편을 료해하고 준비해가지고온 물자들을 넘겨주는것으로 그치였다. 그러다보니 일군들이 여러 계기들에 농촌세대들을 찾군 하였지만 그것이 응당한 실효를 나타내지 못하였었다.

군당위원회는 가정방문이 철저히 정신력발동의 계기로 되도록 하였다. 다시말하여 일군들이 농장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앉아 한해농사과정을 분석해보면서 담당로전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을 원리적으로 깨우쳐주고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게 하였다.

이러한 실속있는 정치사업은 실효가 컸다. 농장원들이 한해 농사에서의 교훈을 정확히 찾게 되였고 그만큼 자각과 분발심도 높아졌다.

좋은 점은 이뿐이 아니였다. 일군들이 농장원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들의 정신력을 발동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포착할수 있었다. 실례로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의 생활력이 발휘되도록 현물분배를 정확히 하는 문제를 들수 있다. 이것은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고조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다.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포착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놓고 군당위원회가 찾은 교훈이 있다. 일군들이 일정한 계기때에만 아래에 내려가서는 농장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갈수 없다는것, 농장원들의 심리와 현실적조건을 정확히 파악할 때라야 교양사업, 정치사업이 은을 낼수 있다는것이였다.

이로부터 군당위원회는 농장원들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원칙에서 올해농사와 관련한 작전을 치밀하게 세웠다.

우선 군급기관의 모든 부서, 일군들이 뒤떨어진 작업반들과 세대들을 1년동안 고정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였다. 일군들이 해당 작업반, 세대들과 항시적으로 현계를 가지면서 걸린 문제들을 앞질러가며 풀어주고 교양사업, 정치사업도 현실에 발을 붙이고 진행하게 하자는 의도에서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또한 일군들이 담당한 작업반, 세대들을 도와줄 정형을 매월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그 과정에 창조된 경험들을 서로 교환하도록 하였다.

그 실효는 현실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지난 2월 1일 군당위원회의 조직사업에 따라 수백명의 군급기관 일군들이 일제히 담당한 작업반들에 내려갔다.

이날 일군들은 농장원들과 나란히 질통을 지고 거름운반작업을 하였으며 담당한 세대를 찾아 점식구들과 식사도 함께 하였다. 농장원들이 좋아했다. 일군들이 이렇게 아래에 내려오니 큰 힘이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였다.

일군들속에서도 반영이 좋았다. 1년동안 작업반, 세대들을 고정적으로 담당하니 한해농사를 마감지은데 만족하여 마음의 량개를 늦추고있는것이였다. 다음해농사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겨울철에 농사차비를 착실히 하는것이 중요했다.

군당책임일군은 곧 모든 작업반들에 붉은기를 띄우게 하는 한편 특색있는 속보판을 세우게 하였다. 속보판에 다수확의 비결은 농사차비를 알심있게 하는데 있다는 내용의 글을 새기게 하고 그아래에 영농자재확보 및 거름생산정형을 세대별로 등수를 내여 소개하도록 하였다.

군당책임일군은 농장원들속에 들어가 직접 반영을 들어보았다. 앞선 농장원들은 온종일 거름을 져나르고도 속보판앞에 서면 힘든줄 모르겠다고 말하였고 뒤떨어진 농장원들은 속보판을 마주할 때마다 자각과 분발심이 높아진다고 솔직한 심정을 터놓았다.

지난 1월에 진행된 농사총화 역시 작업반장들의 열의를 한층 높여주는 계기로 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지난해농사정형을 총화하는 모임을 통하여 농장초급일군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여주기 위하여 품을 많이 들이였다.

군안의 수백개 작업반들의 농사순위를 1등부터 마지막등수까지 내여 발표하게 하고 시상품도 통이 크게 준비하였으며 군기동예술선동대의 공연도 진행하게 하였다.

총화모임이 작업반장들의 경쟁심을 높여주고 사기를 북돋아주는 중요한 계기로 될수 있은것은 군당위원회가 대중의 심리를 잘 알고 그에 맞게 정치사업을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이다.

이곳 군당위원회의 사업을 놓고 다시금 확신하게 되는것은 무엇인가.

대중의 마음속으로！

바로 여기에 정신력발동의 비결이 있다.

본사기자 김 순 영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켜

강서구역 청산리당위원회에서

자기 단위에 어려있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 짜고들어 혁명과업수행에서 성과를 거두는 당조직들속에는 강서구역 청산리당위원회도 있다. 리당위원회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지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것을 보면 방법론도 있고 현실의 요구에도 민감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나라의 농업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는데로 당사업을 지향시켜나가야 합니다.》

뜻깊은 올해 리당위원회에서는 청산벌에 새겨진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찬신하게 진행해나갈 높은 목표를 세웠다.

리당위원회가 이 문제에 주목을 돌리게 된 계기가 있다.

지난해 어느날 농산제6작업반 포전에 나가 작업반원들과 함께 땀흘리며 일하던 문영진리당위원장은 작업의 원칙이 되자 문득 그들에게 물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어떻게 창조되였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런데 일부 농장원들은 그 물음에 확신성있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곁에 있던 작업반초급일군이 새로 들어온 작업반원들이 아직 잘 모르는것 같다고 솔직히 비판하였다.

그때 리당일군이 느낀바는 컸다. 자기 사업에 빈구석이 있다는것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리당위원회가 현실의 요구에 맞게 농장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잘 짜고들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날 저녁 리당일군의 가슴속에는 이런 결심이 굳어졌다.

(농장원모두를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뼈속깊이 새긴 청산벌의 참된 주인들로 키우리라.)

이렇게 되여 리당위원회에서는 올해에 영광의 땅에 뜨겁게 새겨진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을 사상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게 되였던것이다.

리당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지난 1월에 농장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문답식학습경연이 그 좋은 실례로 된다.

최근 몇해동안 농장에서 광명성절을 맞으며 문답식학습경연을 진행하였지만 올해처럼 학습열의가 높기는 처음이라고 한다.

리당위원회는 문답식학습경연을 위해 품을 많이 들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대한 학습과 함께 농장에 새겨진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한 학습을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내밀었다.

이 사업에서 일군들이 앞장서게 하였다. 일군들이 누구보다 먼저 령도업적내용을 환히 꿰들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념원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기수가 되도록 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또한 혁명사적관과 연혁소개실참관을 통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는것과 함께 당세포위원장, 선동원들,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도 높여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북돋아주게 하였다.

이런 사상교양사업들은 응당한 실효를 나타냈다.

농산제3, 7, 10작업반을 비롯하여 농장의 모든 작업반들에서 지난해보다 자급비료생산과 실어내기실적이 훨씬 높아졌다.

뿐만아니라 작업반, 분조 호상간 사회주의경쟁열의가 높아가는 속에 당면한 영농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자기 단위에 어려있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영광의 땅 청산리에 봄을 앞당겨오는 이곳 리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기풍은 얼마나 좋은가.

본사기자 채 인 철

높은 실적에 비낀 헌신의 모습

은산군 신창리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여야 합니다.》

지난해 1월 은산군 신창리당위원장은 담당한 작업반포전에 좀 늦게 나갔다. 걸이대를 모아놓는 장소에 갔던 그는 얼굴이 달아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걸이대가 하나만 남아있었기때문이였다.

농사일에서 뒤진 단위라고 볼수 있는 작업반을 담당한 날부터 그는 새벽마다 큰 거름지게를 지고 남먼저 포전에 나가군 하였다. 그런데 그날만은 군에 일보러 갔다오다나니 좀 늦어진것이였다.

미안하다고 하는 그에게 작업반초급일군은 말하였다.

《그동안 우리 작업반을 담당하여 땀을 적게 흘렸습니까.》

그날 리명철리당위원장은 생각이 많았다.

그동안 작업반농사를 추켜세우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것만은 사실이였다. 그런데 언제나 한모습으로 이신작칙했는가고 물음을 제기하면 그에 뗏뗏이 대답할수 없었던것이다.

사실 그날 그는 포전에 좀더 빨리 나올수도 있었다. 그런데 하루뜸이야 하고 생각하면서 량개를 늦추었다. 그의 속생각을 초급일군이 어느새 알아차렸던것이다. …

그때 일을 돌이켜보며 리당일군은 이신작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절감했다고 한다.

리당위원회는 일군들의 이신작칙을 실무적인 문제로 대하지 않았다. 농촌당일군의 자격문제로 보았다.

리당위원회일군들은 많은 일감을 안고 바삐 뛰는 속에서도 작업반에 나가면 늘 농업근로자들과 어울려 일하였다.

제6작업반의 낟알털기가 쳐지고있을 때에는 탈곡장에 들고앉아 이신작칙하면서 작업반원들을 이끌어 농장적으로 낟알털기를 제일먼저 끝내게 하였다.

리당위원회는 일군들모두가 이신작칙을 대중발동의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나가도록 계기와 조건을 주동적으로 조성하였다.

모내기와 가을걷이를 비롯하여 영농전투로 바쁜 시기에는 뒤진 단위들에 당, 행정, 근로단체일군들이 나가 집중적으로 도와주게 하였다. 의도가 있었다.

첫째로는 로력사정이 긴장한 때에 일군들이 한몫 맡아 해제끼면서 높은 실적을 내게 하자는데 있었고 둘째로는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키자는데 있었다.

지난해 모내기전투때에도 그랬다.

리당위원회일군들은 제3작업반 모내기전투장으로 나갔다. 드넓은 포전에서 작업반원들과 어울려 날랜 솜씨로 모를 꽂아가는 리당일군들을 보며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벼모가 카득 탐긴 굵직한 지게를 지고 신발창이 닳도록 포전길을 부지런히 오고가는 일군들의 일본새는 모내기전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작업반원들은 두몫, 세몫 일하여 농장적으로 모내기를 제일먼저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무렵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일군들도 제1작업반원들과 땀흘려 일하였다. 자기들보다 한발 먼저 포전에 나오고 점심식사도 포전에서 하면서 날이 어두워 논판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일하는 리당일군들과 관리위원회일군들의 일본새에서 농업근로자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이 소식은 한입두입 건너 온 리에 퍼졌다. 리안의 무양가족들과 년로보장자들까지 농사일을 적극 도와나섰다.

일군들의 이신작칙은 대중을 불러일으킨 위력한 정치사업이였다. 농장이 계획했던것보다 모내기를 앞당겨 끝냈던것이다.

영농사업에서 혁신이 일어나자면 논뚝이나 밭머리에서 땀도는 사람보다 포전에서 실지 땀을 흘리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로력이 가장 긴장한 모내기전투때에 만약 일군들이 초급일군들을 불러내여 작업실적을 따지고 회의실에서 앞으로 나가자고 호소하는 식으로 일하였다면 과연 이런 성과가 났겠는가.

신창리당위원회 사업은 일군들이 땀을 흘리는것만큼 실적이 높아진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손 영 희

올해농사차비를 잘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나간다.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전문농장에서－ 본사기자 최 충 성 찍음

이신작칙은 힘있는 선동

룡천군 동신협동농장 제3작업반 부문당위원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이 이신작칙하는것도 하나의 힘있는 선동입니다.》

룡천군 동신협동농장 제3작업반은 농사에서나 작업반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사업에서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는 단위이다. 그 비결을 풀으면 작업반원들은 한결같이 부문당위원장 강태복동무의 헌신적인 투쟁기풍을 선참으로 꼽는다.

작업반원들을 교양하고 불러일으키는데서 강태복동무는 언제나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고있다.

지난 1월초 어느날 이른아침이였다. 거름실어내기전투장으로 달려나온 작업반원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농장원들의 가정방문을 하고 저녁늦게야 집으로 돌아간 부문당위원장이 언제 나왔는지 벌써 현장에 붉은기며 전투적인 구호와 표어를 전개하고 속보판옆에는 자기가 직접 엮은 모판나래들을 쌓아놓았던것이다.

새해벽두부터 대중의 앞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심장에 불을 달아주는 당초급일군의 모습에서 농장원들은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부문당위원장의 뒤를 따라 그날 거름실어내기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되였다.

이런 일은 그 다음날에도 반복되였다.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부문당위원장의 말없는 정치사업은 농장원들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분출시켰다. 작업반에서는 방대한 량의 거름실어내기를 5일이나 앞당겨 끝냈으며 모판나래를 비롯한 영농물자들도 충분히 마련해놓게 되였다.

농장적인 물길바닥파기전투에서 제3작업반이 앞장서게 된데도 부문당위원장의 기수적역할이 큰 작용을 하였다.

얼마전 농장에서는 1700여m의 물길바닥파기전투를 조직하였다. 언땅을 까내는 힘든 작업이였다. 무슨 일에서나 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던 제3작업반이 첫날전투에서 높은 실적을 내지 못하였다. 그날 작업반에서는 계획된 작업과제를 다 수행하지 못한데 총화를 진행하게 되였다.

총화모임에 참가한 부문당위원장의 마음은 개운치 못하였다. 모임이 끝난 후 당초급일군들과 선동원들을 남게 한 그는 말하였다.

작업조건은 우리 작업반이나 다른 작업반이나 다 같다. 그런데 왜 뒤떨어졌겠는가. 원인을 우리 초급일군들에게서 찾자. 미진된 과제를 우리가 수행하자.

그의 말은 길지 않았다. 초급일군들모두가 부문당위원장의 뒤를 따랐다. 이렇게 되여 작업반장 문성식동무와 당초급일군들, 선동원들은 힘을 합쳐 미진된 물길바닥파기를 끝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길에 나서게 되였다.

다음날 전투장에 나온 농장원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대며 걸싸게 일을 해제끼는 당초급일군들과 선동원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마음과 뜻을 함께 할 의지를 더욱 굳힌 농장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맡은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나날 작업반의 당초급일군들과 초급선전일군들은 농장원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술은 헌신에 있다는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였다.

이신작칙은 열, 백마디의 말보다 더 힘있는 선동이다. 이것을 부문당위원장 강태복동무는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장 철 범

2면에서 계속

정녕 혁명하는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대대손손 가슴깊이 새겨안아야 할 귀중한 카르치심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민족적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은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습니다.

《확실히 6월1일청년전기기구종합공장 일군들이 이악합니다. 이 공장 일군들처럼 높은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지 않으면 이런 복잡한 공장을 운영할수 없습니다.》

그이의 거듭되는 높은 평가를 받고보니 불시에 공장이 걸어온 짧지 않은 로정이 더듬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공장이 발전된 나라들에서만 만든다면 무리등을 척척 만들어내고 오늘과 같이 어려운 때에도 자존심을 잃지 않는 배짱을 가지게 된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금수산의사당을 건설할 때였습니다.

그때 전문일군들은 금수산의사당에 설치하는 무리등은 그 형식에서나 질에서 최상의 품위가 보장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전된 나라에서 사들여오려고 수입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슴이 아프시여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것을 왜 우리가 못 만들겠는가, 자신께서는 금수산의사당에 설치하는 무리등만은 꼭 우리의것을 달고싶다고 하시며 그 영예로운 과업을 우리 공장에 맡겨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 며칠후에는 책임일군들을 내려보내여 자신께서는 우리 공장 로동계급을 믿는다고, 그러니 수입제품 통가하는 무리등을 꼭 만들어내길 바란다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게 하여주시였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에게 굳센 담력을 심어주시는 크나큰 믿음이였습니다. 그 믿음을 받아안은 우리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산악같이 일떠섰습니다. 우리들은 종래의 방법을 초월하여 환강생산기지와 국내원료에 의거하는 구슬생산기지를 현장에 접근시키고 집중접기와 볼반, 사출기와 프레스를 비롯한 설비들을 제작설치하는 불꽃튀는 전투를 벌렸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여선지 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고심어린 노력끝에 우리 공장에서는 단 몇달사이에 우리의 자재와 우리의 기술, 우리의 로력으로 금수산의사당에 필요한 무리등 전량을 다른 나라것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내게 되였습니다.

이렇듯 일찌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공장 로동계급에게 그 어디에도 비기지 못할 배짱과 탁력을 주셨기에 우리는 지금껏 외국것들일에서 주점이 들지 않고 발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신심있게 걸어올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이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악하다고, 자존심이 강하다고,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여주시니 저는 송구스러워지는 마음을 바이 달랠길이 없었던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심정을 다 읽으신듯 점도록 나를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계속 민족적자존심을 지켜나가기를 바라시며 중요한 과업을 주시였습니다.

철연물과 칠감문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철연물과 칠감의 조성이며 성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나서 지금 일부 사람들은 써하면 다른 나라의것을 사다쓰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철연물과 칠감을 우리라고 만들지 못할것은 없습니다.

6월1일청년전기기구종합공장에서 질좋은 철연물과 칠감을 생산하여 일부 일군들의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시고는 나에게 동무들이 한번 철연물혁명을 일으켜 질좋은 철연물을 만들어보라고,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철연물과 칠감을 수입제만 요구하는데 이 공장에서 이런 제품만 대량생산한다면 공장은 공장대로 좋고 철연물을 사와야만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의 정신도 번쩍 들게 하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면서 환히 웃으시였습니다.

다시금 현장안을 만족하게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오늘 기쁘게 생각하는것은 이 공장 일군들이 민족적자존심을 안고 사는 그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은 아마 강행군을 열백번 해도 무서울것이 없을것이라고 다시금 높이 평가해주시였습니다.

《6월1일청년전기기구종합공장에서 최근 몇해동안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많은 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이 공장 일군들처럼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일을 내밀면 못해낼것이 없으며 강성대국을 건설하는것도 문제없습니다.》

우리들에 대한 최상의 믿음이 담긴 말씀이였습니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강행군이 끝나면 큰 규모의 건설을 많이 해야 하는것만큼 무리등생산기지를 더 잘 꾸릴데 대한 문제, 공장의 전기조작기구생산설비를 갱신하고 현대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앞으로 우리 공장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인 카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또한 남편도 없이 한 직장에서 32년동안 일하는 한 녀성의 소행을 귀중히 여기시며 인민군대에 나간 아들앞에 떳떳하게 생의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는 믿음도 안겨주시고 수자조종장치설계사업소 성능실험실에 들리시여서는 과학자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땀흘리며 해설해드리는 저에게는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말하라고 하시기도 하고 저의 나이를 알아보시고서는 62살이면 앞으로 15~20년은 더 지배인사업을 할수 있다고 격려해주기도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준비가 되지 않아 기념촬영을 하지 못하게 된것을 아시고 못내 서운해하시며 《고난의 행군》시기와 강행군시기에 일을 많이 한 이 공장 로동계급과 사진을 찍으려 했는데 섭섭하게 됐다고, 다음번에 와서 꼭 찍겠으니 로동자들에게 방해를 시켜달라고 절절히 당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떠나기에 앞서 나의 손을 꼭 잡으시고 지배인동무의 결의대로 앞으로도 민족적자존심을 걸고 일을 잘하라고 거듭 부탁하시고는 못다 준 정이 있으신듯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이 공장 지배인이 대단한 일군입니다.…이런 사람이 일군입니다.》

저는 그이를 바래우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이는 참다운 조국애와 민족적존엄을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며 우리 일군들이 그이의 뜻을 안고 다소나마 성과를 거두었을 때 그토록 기뻐하신다고 말입니다.

그후 우리 공장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카르치심대로 전기조작기구와 함께 수입제에 못지 않은 질좋은 철연물과 칠감을 생산하여 여러 부문에 보내주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필승의 보검인 민족적자존심과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는 정신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숨지는 순간까지 저는 이 땅우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는 그이의 숭고한 뜻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갈것입니다.

주체89(2000)년 4월

수산사업소들사이의 2017년 사회주의경쟁총화모임 진행

수산사업소들사이의 2017년 사회주의경쟁총화모임이 서해안지구와 동해안지구로 나뉘여 13일과 21일 문덕수산사업소와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에서 진행되였다.

수산상 송춘섭동지, 관계부문, 경쟁참가단위 일군들, 어로공들이 모임들에 참가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직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한우팔동지가 경쟁총화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해 당의 수산정책관철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과학수산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호롱한 물고기대풍을 안아옴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들에서는 경쟁순위가 발표되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사회주의경쟁순회우승기와 표창장이 문덕수산사업소, 염주수산사업소, 원산수산사업소, 련진수산사업소에 수여되였다.

모임들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인민군대 어로전사들이 발휘한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물고기잡이전투에서 집단적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넘치게 하고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모임들에서는 2018년 사회주의경쟁요강이 발표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결의목표를 높이 세우고

2.8비날론련합기업소 가성소다직장 초급당위원회에서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를 높이 세우고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직장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결의목표에 반영한데 기초하여 맹렬한 선전선동공세를 돌이키고 단위별경쟁도 조직하였다. 이와 함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영예등록장과 영예게시판운영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대중의 열의가 고조되는 속에 반년은 실히 걸린다던 전물개건공사가 두달남짓한 기간에 결속되였으며 생산에서도 련일 혁신이 창조되였다.

지금 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할이 없이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다.

로농통신원 장 명 일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조국강산을 아름다운 락원으로 꾸려나가자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군회의 진행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군회의가 2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와 오수용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책임일군들, 성, 중앙기관 일군들, 도, 시, 군의 당, 정권기관 일군들,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관계부문 일군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박영식동지를 비롯한 무력기관 일군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산림복구전투 1단계과업수행정형과 지난해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의 성과와 교훈이 분석총화되고 올해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먼저 산림복구전투 1단계과업수행정형과 지난해 국토관리총동원사업정형을 보여주는 다매체편집물시청이 있었다.

편집물들에서는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황금산, 보물산의 새력사를 펼치며 나라의 면모를 사회주의강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들이 소개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토관리사업에 온 나라가 떨쳐나서야 합니다. 도들에 현대적인 양묘장들을 꾸리고 산림복구전투를 근기있게 밀고나가며 강하천관리와 도로보수, 환경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국토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산림복구전투와 국토관리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신 불멸의 업적과 헌신의 로고를 전하는 력사적화폭들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절세위인의 숭고한 애국의 뜻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산림복구전투 1단계과업수행정형을 수록한 편집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전국각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산림복구전투 1단계기간 모체양묘장들을 현대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 180여개의 양묘장들을 새로 건설하고 개건하였으며 해마다 나무모생산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상세히 보여주었다.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과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 전국의 시, 군모체양묘장들사이에 원격협의체계와 양묘장운영지휘체계가 확립되고 중앙산불방지지휘소가 훌륭히 꾸려져 산불감시정보봉사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진데 대하여서도 소개되였다.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김책, 강계시, 세포, 온산, 연탄, 대홍단, 리원, 문덕, 송화군 등의 경험들이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지난해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국토관리정책을 높이 받들고 도로건설과 관리, 강하천정리에 힘을 넣어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킨데 대하여 보여주는 편집물이 방영되였다.

거리와 마을들을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요구에 맞게 잘 꾸리고 수산자원과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들도 소개되였다.

회의에서는 산림복구전투와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나타난 편향들이 토론을 통하여 분석총화되였다.

토론들에서는 산림복구전투 2단계목표수행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할데 대한 문제, 림업부문에서 당의 순환식채벌방침을 높이 받들고 통나무생산계획과 공급질서를 바로세우며 장악통제를 잘할데 대한 문제들이 강조되였다.

산림복구전투를 위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 철도, 석탄공업부문에서 산림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내밀데 대한 문제들이 토론들에서 언급되였다.

토론들에서는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산림복구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과 대중운동을 적극 벌리며 산림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 산불을 막기 위한 범적투쟁을 강도높게 벌려나갈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도로의 기술상태를 개선하고 강하천정리를 정상화하며 환경보호사업을 과학적으로, 책임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 등도 강조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산림복구전투와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앞당겨 끝낸 굴보수공사

홍원군에서

《제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 홍원군에서 짧은 기간에 방대한 차굴보수공사를 끝낸 사실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군당위원회에서는 굴간보수문제로 일군들의 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에서는 어느 한 령의 굴바닥포장과 벽체에 대한 대보수공사문제가 론의되였다. 회의장에는 아무리 속구구해보아도 문제해결방도가 서지 않아 난감해하는 눈빛들이 서로 엇갈려있었다.

사실 이 공사는 많은 품을 들여야 하였다.

이전에 포장했던 도로바닥을 들어내고 다시 포장하는 일은 결코 쉬운것이 아니였다. 더우기 차굴천정과 벽체의 수백개소에 대한 보수는 아외건물을 보수하는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세멘트, 흔석을 비롯한 자재가 적지 않게 요구되였다. 정한 기일도 불과 몇달 안되였다.

따져볼수록 자체의 건설력량을 가지고 공사를 제기일안으로 해내기 어려울것이라는 생각이 일군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군당책임일군의 립장은 단호하였다.

우리가 세운 목표는 방대하고 조건은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해내야 한다. 할수 있는가. 제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반드시 해낼수 있다.

자력갱생이 제일이라는 철리를 뼈속깊이 새겨주는 그의 말은 일군들을 분발시켰다.

군일군들은 가능성을 따지기전에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결사관철의 립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대보수공사를 앞당겨 끝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들은 우선 공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예견성있는 작전을 펼치고 내밀었다. 그리하여 공사기간 륜전기재들의 운행과 인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군금기관별로 돌격대를 뭇고 사회주의경쟁을 벌리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대책을 세워나갔다.

보수공사에서 제일 어려운것은 도로바닥을 까내는것이였다. 함마와 정대로 까내자면 그만큼 힘이 들고 공사기일도 오래 걸리였던것이다.

일군들은 긴박한 정황에 맞게 기계설비를 리용하여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였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모두가 발동되여 찾은 내부예비로 필요한 설비들을 해결하였다. 이 설비들이 공사에서 한몫 단단히 하게 되였다.

온반실적이자 공사실적이다. 이를 명심한 일군들은 해당 단위와의 련계밑에 운수수단을 총동원하여 공사가 중단없이 진행되도록 조건보장사업을 짜고들었다. 공사장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집단적사회주의경쟁열풍이 휘몰아치는 속에 시간을 다투며 혁신이 창조되였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누구나 할것없이 뛰고 또 뛰였다. 낮에 밤을 이어 긴장한 전투를 벌렸다. 군인의 녀명원들이 자진하여 비력실어내기와 물재운반을 맡아나섰다.

하나로 합쳐진 마음은 큰 힘을 낳았다.

완강한 공격정신을 지니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간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투쟁에 의하여 1년이상 걸려야 한다던 공사는 불과 몇달동안에 끝나게 되였다.

조건이 어렵고 불리할수록 자기 힘을 굳게 믿고 신심드높이 떨쳐나설 때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다는것, 이것이 공사의 나날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다시금 새기게 된 진리였다.

방영진

이런 일본새가 산림복구전투의 성과를 담보한다

자강도산림복구전투지휘부에서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자강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난 3년동안에 수억그루의 나무를 심어 산림복구 1단계전투목표를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가 당의 의도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산림복구전투지휘부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이곳 일군들이 전당, 전군, 전민을 산림복구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받아안았을 때였다.

산림복구전투는 자연과의 전쟁이라는것을 명심한 도산림복구전투지휘부의 일군들은 이 사업을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조직전개하였다.

여기서 일군들이 중시한것은 산림복구전투에서 나무모가 총포탄이라면 양묘장은 그것을 생산보장하는 병기창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업을 작전하고 실계한것이다.

그 대표적실례가 희천시와 전천군, 송원군의 경험을 다룬 시, 군들에서도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한것이다.

일군들은 산림경영소 모체양묘장들에 대한 보여주기를 의의있게 조직하고 시, 군들의 모체양묘장들에 희천분무식원형삽목장, 영양단지나무모생산공정을 비롯하여 나무모생산을 공업화, 집약화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빈틈없이 갖추도록 적극 이끌어주었다.

일군들의 혁신적인 작전과 투쟁기풍은 대중의 심장을 애국의 열정으로 불타게 하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도안의 시, 군모체양묘장들에 나무모야외재배장과 희천분무식원형삽목장, 나무모온실, 나무모저장고 등이 훌륭하게 갖추어져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게 꾸려졌다.

일군들은 그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그 실현에로 대중을 고무추동하였다.

일군들은 시, 군모체양묘장들에 과학기술보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랭화질석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꾸려 나무모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사업도 방법론있게 밀고나갔다.

도에서는 시, 군모체양묘장들과 강계농림대학에 나무모온실을 건설하고 창성이깔나무와 잣나무, 참대버드나무를 비롯한 도의 지대적특성에 맞으면서도 빨리 자라고 경제적효과성이 큰 나무모들을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다른 하나는 산림복구전투에서 중요한것은 나무를 몇대 심었는가가 아니라 몇대를 살렸는가 하는데 있다는것을 심장에 새기고 조직사업을 짜고든것이다.

앞선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면서 심은 나무들에 대한 사름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지도를 따라세운 문제를 놓고보자.

일군들은 강계시에서 사철 빨리 자라며 환경적응 및 병해충저항성이 강한 참대버드나무를 많이 심고 퍼치고있는 경험, 시중군에서 적기를 바로 정하고 나무를 심어 사름률을 높이고있는 경험 등 여러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따라세웠다.

이러한 과정에 산림부문 일군들과 산림감독원들속에서 따라 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졌으며 산림복구전투에 애국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기풍이 서게 되였다.

일군들은 이에 머무르지 않고 각종 처리제들과 영양액들을 나무심기에 적극 받아들여 사름률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심은 나무들의 사름률을 높이는데서 일군들이 중시한 또 하나의 문제는 숲사이나무모기르기를 중시한것이다.

도의 실정을 놓고보면 산림감독원들과 산림용반원들이 관리하는 숲사이나무모밭들에서 생산되는 나무모가 적지 않다. 숲사이나무모밭들에서 자란 나무모들은 온반거리가 짧아 연유와 로력이 절약되는것은 물론 뿌리가 마르는 현상이 적었다. 숲사이나무모기르기사업이 적극적으로 벌어진 결과 심은 나무의 사름률을 훨씬 높일수 있었다.

일군들은 산림용반원들과의 사업을 짜고드는데 각별한 힘을 넣어 그들이 애국의 뜨거운 마음을 안고 심은 나무들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도안의 시, 군들에서 사회주의애국림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사철나무심기방법이 적극 도입되고 림농복합경영대상지들에 통나무심기와 그늘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어져 경제적효과성이 큰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였다.

이곳 일군들처럼 산림복구전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선포한 당의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면밀한 작전, 능숙한 지휘로 대중을 이끌어나갈 때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서는 더 큰 성과가 이룩될것이다.

특파기자 김순홍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높이 받들고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에서 혁신을 창조해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푸른 숲의 참된 주인

송화군산림경영소 산림감독원 김문철동무

푸른 숲의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여 조국의 재부를 늘여가고있는 애국자들속에는 송화군산림경영소 산림감독원 김문철동무도 있다. 그는 제대군관이다.

비록 초소는 바뀌였어도 당이 맡겨준 영예로운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다.

《우리 함께 푸른 숲의 밑뿌리가 되자구. 영화의 주인공처럼…》

김문철동무가 산림감독원으로 일하게 되였을 때 김순남지배인이 한 말이였다.

산림복구전투에서 양묘장은 전시에 탄약을 생산보장하는 군수공장이나 같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긴 그는 숲사이양묘장을 훌륭히 꾸릴 결심을 하고 달라붙었다. 척박한 산지에 양묘장을 조성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숲사이양묘장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해내고 수십리길을 오가며 소석회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숲사이양묘장에 희천분무식원형삽목장도 꾸려놓고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키워냈으며 수정보에 달하는 림농복합경영지에 수만그루의 잣나무를 심어가꾸었다.

힘들 때마다 그는 푸른 숲 우거질 래일을 그려보며 새 힘을 얻었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더욱 분발해나섰다. 숲사이양묘장에서 해마다 창성이깔, 잣나무모를 비롯한 십여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였을 때 그의 기쁨은 컸다.

이렇게 생산한 나무모들을 담당림에 심어 자기가 사는 고장의 산들을 푸른 숲으로 우거지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는 오늘도 조국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는 사업에 참된 삶의 년륜을 새겨가고있다.

본사기자

목표를 높이 세우고 끝장을 볼 때까지

송림시에서

송림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뜻깊은 올해에 거리와 마을, 일터를 더 잘 꾸려갈 일념을 안고 자신심에 넘쳐 진군속도를 높여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오분열도식일본새를 없애고 실지 인민생활향상에 도움이 되고 나라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 끝장을 보아야 합니다.》

지난해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애국의 한마음으로 떨쳐나 도로와 강하천정리는 물론 자기 사는 거리와 마을, 일터들을 번듯하게 꾸려 시의 면모를 일신시키였다.

하다면 당의 국토관리정책관철에서 이곳 일군들이 잘한 점은 무엇인가.

지난해 국토관리사업을 토론할 때 있은 일이였다. 도로와 살림집보수, 거리와 마을꾸리기 등 방대한 량의 일감이 제기되자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지나치게 욕망만 앞세운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하지만 책임일군들의 결심은 확고하였다.

국토관리사업은 조건이 좋으면 하고 불리하면 그만두어도 되는 사업이 아니다. 당정책의 운명이 전적으로 우리의 어깨우에 놓여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기관차가 되여 달리면 얼마든지 목표를 수행할수 있다.

일군들모두가 분발해나섰고 통이 큰 목표가 세워졌다.

책임일군들부터 앞재를 메고 덩지큰 일감들을 맡아안았다. 시일군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대상공사과제수행에서 성과가 이룩될수록 일군들은 사소한 빈틈이 없도록 작전과 지휘를 면밀하게 해나갔다.

도로보수과정이 그 대표적실례였다. 이 공사를 앞두고 일군들은 단위별로 담당구간들을 정해준 다음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할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나갔다. 또한 도로주변에 대한 원림록화사업도 동시에 내밀게 하였다.

일군들이 어깨를 들이밀고 앞재를 메니 대중의 정신력은 고조되였다. 아름차다고 생각했던 방대한 공사도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는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굴함없는 공격정신을 지니면 불가능이란 없는 법이다.

일군들은 이런 관점에서 필요한 자재와 물동운반문제해결의 앞장에 섰다. 시급기관, 기업소는 물론 근로단체조직들과 가두인민반들도 시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섰다. 시안의 농장들에서도 담당한 도로구간관리사업은 물론 자기가 사는 마을을 훌륭히 꾸리기 위해 애국의 땀을 바쳐나갔다.

부족되던 로력문제도 일군들이 앞재를 메고 헌신하니 어렵지 않게 해결될수 있었다.

국토관리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니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살림집들에 대한 대보수 및 외장재바르기, 대동강호안장석공사, 오수정화장바닥감향과내기를 비롯한 여러 공사과제들이 손색없이 결속되여 시의 면모가 더욱 환해졌다.

시일군들의 사업경험은 우리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끝장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내미는 일본새를 가지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리충일

구체적인 작전, 완강한 실천

안악군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원대한 목표와 리상을 가지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새것을 창조하고 받아들이는데서 개척자가 되고 선구자가 되며 일단 시작한 일은 완강하게 내밀어 끝장을 보는 실천가가 되여야 합니다.》

안악군에서 강하천정리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지난해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만도 군에서는 연 수십km구간의 강하천정리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수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수천㎥의 돌을 채취하여 장석을 쌓아야 하는 아름찬 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완성한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성과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경험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준비사업에서부터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것이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슨 일에서나 첫걸음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첫걸음은 작오나 욕망만 가지고서는 옳게 뗄수 없다.

일군들이 대중을 불러일으켜 당정책관철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자면 전투시작에 앞서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지난해 강하천정리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군의 헌신이 이것을 보여주고있다.

군일군들은 전투승리는 시작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지답사부터 구체적으로 하였다. 강하천정리가 해마다 해오던 사업이라고 하여도 실태를 손금보듯 장악하여야 옳은 방법과 대책을 세울수 있기때문이였다.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 일군들은 군안의 강하천들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로력과 자재, 륜전기계, 작업량 등을 면밀하게 타산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작전안이 세워지고 해당한 조직사업이 진행되였다. 결국 시작부터 공사를 신심있게 내밀수 있게 되였다.

이곳 일군들이 준비사업을 위해 또 한가지 잘한것이 있다.

군안의 모든 력량이 총동원되여 동시에 결속해야 하는 강하천정리사업의 특성에 맞게 그 준비작업의 선후차를 옳게 정하고 끝장을 볼 때까지 내밀수 있도록 치밀하게 짜고든것이다.

여기서 놓치지 않은것이 돌보장문제였다.

공사가 일단 시작되여도 돌보장을 제때에 따라세우지 못한다면 계획한 날자에 성과적으로 끝낼수 없기때문이였다. 군일군들은 돌확보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였다.

구간별작업량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단위별능력에 따르는 분담도 즉시에 진행하였다. 결과 모든 단위들이 자신심을 가지고 전투시작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짚을수 있었다.

잘 뗀 시작이 보다 좋은 결실을 거두자면 일군들의 완강한 실천력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사실 지난해 강하천들에 대한 현장료해를 하면서 일군들이 심각히 자책한것이 있었다. 강하천정리사업을 해마다 진행해왔다고 하지만 실지로 따져보면 원만한 수준에서 수행되였다고 볼수 없었던것이였다.

실례로 어느 한 하천구간은 생각했던것보다 정리할 량이 훨씬 많았다. 그것을 보며 군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질데 대한 당정책적요구를 다시금 뼈속깊이 새기였다. 그럴수록 지휘성원으로서의 자각과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일군들모두가 마음의 신들메를 바싹 조이고 분발해나섰다.

정작 일판을 벌려자고보니 작업량이 간단치 않았다.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군책임일군의 립장은 명백했고 실천도 완강했다.

이렇게 되여 그 하천에 대한 정리공사가 전개되였다. 단순한 보수나 정리가 아니라 본보기가 될수 있도록 통이 크게 작전하고 실천해나갔다.

일군들이 공사의 어렵고 힘든 모퉁이들을 하나씩 담당하고 어깨를 들이밀며 헌신하니 그다음의 일은 저절로 풀려나갔다. 그리하여 어렵게만 생각되던 하천정리공사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났다.

군일군들의 이러한 과학적이고 헌신적인 전투조직과 이신작칙의 일본새로 하여 다른 하천정리공사들도 응당한 높이에서 훌륭히 결속될수 있었다.

리영학

환경보호사업에 품을 들여

평성시의 삼릉리에 배일 많은 량의 오수를 정화할수 있는 오수정화장이 건설되였다. 이외에 2개의 오수정화장이 새로 생겨났다. 결과 시안의 주민지구에서 나오는 오수를 말끔히 정화하여 강물의 오염을 더 잘 막을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였다.

이 성과는 뜨거운 향토애,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수령의 유훈관철건,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 시일군들의 완강한 투쟁기풍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환경보호, 자연보호관리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당의 국토관리정책에는 조국산천을 사회주의강국의 체모에 어울리게 더 잘 꾸릴수 있는 방도가 다 밝혀져있다. 문제는 일군들이 당정책을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대하고 관철하는가에 달려있다.

시에서 오수정화장을 새로 더 건설한 과정을 놓고보자.

이 문제가 제기되자 일부 사람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보자는가 혹은 성과가 눈에 뜨이는 일에만 치우치면서 이 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있었다.

시인민위원장의 가슴은 몹시 아팠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을 돌이켜보게 되였다.

조국산천을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면서도 더욱 아름답게 변모시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가. 오수정화장이나 땅속에 묻혀있는 오수망에는 사람들의 눈길이 잘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오수정화야말로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 문제는 일정에 올랐다.

시와 상급기관 일군들은 진지한 토의끝에 오수정화장건설문제를 합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오수정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해당 단위들과 련계하여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오수정화장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혁신적으로 밀고나갔다.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몸을 초불처럼 장그리 불태우려는 일군들의 드놀지 않는 신념에 의해 오수를 말끔히 정화할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였다.

자기 부문,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는 옳은 방법론을 세워야 당정책을 정확히, 신속있게 집행할수 있으며 그것이 실지로 큰 온을 내게 할수 있다.

그렇다면 오수정화장건설에서 이곳 일군들이 중시한것은 무엇인가.

그 어떤 조건에서도 오수정화장이 자기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는것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오수정화장이라고 하면 해당한 설비와 시설들을 갖추어놓고 전기를 리용하여 운영하는것으로 알고있었다.

이런 방식이 실정에 맞겠는가. 일군들의 심중은 복잡하였다.

뜻밖의 일로 전력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방도는 오직 하나 생물학적방법을 리용하는 오수정화장을 건설하는것이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오수를 원만히 정화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해당 단위들과의 련계를 긴밀하게 해나갔다. 그 과정에 어느 한 오수정화방법에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전기를 전혀 쓰지 않고 자연흐름식으로 오수가 흐르게 하면서 혐기성미생물에 의한 정화를 할수 있는 이 방법은 시의 실정에 아주 적합하였다.

그런데 이 방법은 소규모적인 오수정화공정에서나 받아들이는것으로 되여있었다.

무슨 일을 하나 해놓아도 실지 온을 낼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일군들은 해당 기관과의 합의밑에 대담하게 이 방법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들은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오수정화장건설을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특히 오수를 정화장까지 끌어오기 위한 공사를 불이 번쩍나게 해제끼였다. 어려울수록 시인민위원회 강인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대중의 앞장에서 그들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추동하였다. 모두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방대한 오수정화장건설은 성과적으로 끝나게 되였다.

결과 시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게 되였다.

경험은 일군들이 당정책의 운명은 자신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추호의 양보도 없이 완강하게, 혁신적으로 일해나갈 때 그 어떤 조건에서도 성과는 확정적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황철민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련합회대표단이 떠나갔다

박용하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련합회대표단이 21일 평양을 떠나갔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해외동포사업국국장 김진국동지가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대가정

각지 독자들이 보내온 편지를 보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편지에서 우리는 쉬이 눈길을 뗄수 없었다.

한 조선인민군 군관이 보내온 편지였다.

《지난해 11월 중순 저와 안해는 청진청년역을 출발하여 평양으로 가는 려객렬차를 타게 되였습니다.

렬차가 오봉리역에 도착했을 때 저의 안해는 뜻하지 않게 심한 출혈과 아픔으로 모대기게 되였습니다.

이야기꽃을 피우던 손님들도 곤히 잠든 자정이라 저는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 려객전무 최광천동무가 달려와 상황을 알아보고 렬차에 타고있는 의료일군들을 찾아 진단을 할수 있게 하였는데 시급히 병원으로 후송하여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봉리역의 종업원들은 인민군군관의 안해가 사경에 처했는데 지체할수 없다고 하면서 집에서 이불까지 안고 달려나와 후송을 도와나섰습니다.

저의 안해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아낌없는 방조속에 역에서 제일 가까운 병원인 단천마그네사공장병원에 도착한것은 새벽 1시경이였습니다.

위급한 환자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김용호, 김길식선생님을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한달음에 달려나와 긴급협의회를 열고 치료전투에 들어갔습니다. 치료의 나날 저의 안해는 병원의료집단의 성의가 깃든 몸보신에 좋은 수많은 보약들과 건강식품들을 받아안았습니다.

이렇게 저의 안해는 사경에서 구원되였습니다.

지금도 잊을수 없습니다.

렬차에 승무하여야 할 임무가 있어 따라설수 없는 마음을 리해해달라며 오래도록 바래주던 려객전무 최광천동무를 비롯한 승무원들의 진심어린 모습들과 이불을 안고 달려나왔던 낯모를 오봉리역의 종업원들, 밤을 새워 치료전투를 벌리며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에게 자기들의 피를 아낌없이 뽑아 넣어주고도 흔연히 미소를 짓던 단천마그네사공장병원 산부인과 과장 신동수선생님과 의사들인 김명철, 심현일, 리영실선생님들 그리고 간호원들인 최금성, 박경숙, 전은심동무들의 모습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집니다.》

조선인민군 군관은 전지에 이러한 사실을 전하며 인민의 수호자,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우리의 일심단결, 군민대단결이 무엇으로 하여 그처럼 굳건하고 위대한가를 엿볼수 있게 하는 편지였다.

우리 사회의 참모습과 우리 시대 인간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는 승호군 승호2로동자구에서 사는 영예군인 리원숙동무의 편지에도 담겨져 있었다.

영예군인은 편지에 근 20년간 승호리세멘트공장의 청년동맹원들은 수없이 교체되였지만 청년들의 미덕은 끝없이 이어진다고 하며 이렇게 썼다.

《조국보위초소에 섰던 최녀시절이 엊그제같은데 어느덧 예순살이 넘었습니다.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자라나는 이런 훌륭한 청년들이 있기에 저는 수십년을 하루와 같이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을 누려올수 있었습니다.》

증산군산림경영소의 일군들과 증산군 발산고급중학교의 교원들 그리고 발산리의 일군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고있다는 증산군 발산리에 사는 영예군인 김룡철동무의 편지는 또 얼마나 심금을 울려주는가.

대성구역 룡흥2동에 사는 영예군인 김창민동무는 편지에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내과진단학강좌 리금숙동무의 소행을 전하면서 일심단결의 대화원을 마련해준 어머니 우리 당에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였다. 우리는 여기에 남로 늘어만 가는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적을수 없다. 그러나 확신하게 되는것이 있다.

이 땅에 인간사랑의 이야기가 만발할수록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사회주의제도는 더욱 소중히 자리잡고 우리 조국은 보다 굳건해지리라는것을.

본사기자 신현규

우리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마식령스키장에 인민의 기쁨 넘쳐난다.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일터의 류다른 향기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신의주화장품공장은 언제 가보아도 드넓은 구내에 뭇꽃들이 활짝 피여있는것만 같이 그윽한 향기가 넘쳐흐른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고 우리 인민이 사랑하는 이 공장 제품의 독특한 향기 즉 봄향기라고 말한다.

사시절 봄향기 흐르는 자랑많은 일터, 이곳에는 올해에 들어와 또 하나의 류다른 향기가 짙게 풍겨났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입니다.》

지난 1월 어느날 공장일군이 정문경비를 책임지고있는 리성일동무를 찾아왔다.

《고구마를 구워본적이 있소?》

일군의 느닷없는 물음에 리성일동무는 눈이 휘둥그래졌다. 그는 한참만에야 어느해인가 평양전하을 갔다가 군밤, 군고구마대대에서 사먹어본적이 있을뿐 제손으로 구워본적은 한번도 없다고 사실대로 말했다.

그러자 일군은 동무한테 특별과업을 줄테니 오늘부터는 매일 고구마구이를 해야 하겠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 종업원들이 퇴근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 뜨끈뜨끈한 군고구마를 들게 되면 얼마나 좋아들 하겠소?!》

금방 구워낸 고구마를 훌훌 불며 맛있게 드는 종업원들의 모습이 벌써 눈앞에 삼삼히 어려오는지 일군은 검실한 얼굴에 사람좋은 미소를 그렸다.

리성일동무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전날 그 일군이 퇴근버스를 기다리는 종업원들에게로 다가가 춥지 않은가, 발은 시리지 않은가고 하며 웃섞을 툭툭 여쳐주던 광경이 떠올랐다.

사실 퇴근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란 공장종업원들이 정문앞에 다 모이는 분과 몇분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하지만 종업원들을 제살붙이처럼 여기는 일군에게는 그 일분일분이 한시간맞잡이로 여겨진것은 아닌지.

얼마 안있어 공장정문앞에는 고구마를 구울수 있는 검직한 화로가 놓이고 연통관도 솟구쳐올랐다.

그날 저녁 하루일을 끝내고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며 퇴근길에 올라 정문을 가까이하던 종업원들은 구내의 봄향기에 섞여 구수하게 풍겨오는 군고구마냄새에 누구나 자기들의 코를 의심하였다.

약속이나 한듯 불씨가 탁탁 튀는 화로곁으로 너도나도 모여든 종업원들의 손에 경비근무성원들은 정성껏 구운 먹음직스러운 고구마들을 들려주었다.

좋아라 손벽을 치던 비누직장 녀성종업원들도, 공무직장의 나이지숙한 로동자들도 뜻밖의 군고구마에 깃든 사연을 알고는 모두들 가슴이 뜨거워났다.

공장정문앞에 고구마구이를 위한 화로가 처음 생겨나던 날 그 한알한알의 고구마에조차 목이 메여하던 종업원들이 매일 퇴근시간마다 어김없이 풍기는 그 구수한 향기에 익숙되여 고구마를 들지 않고는 퇴근버스에 오르지 않게 되였다.

하지만 어찌 그들이 한시인들 잊으랴.

한겨울 공장정문앞에 펼쳐진 군고구마풍경에 우리 당의 인민사랑, 전당이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위대한 당풍이 어려있다는것을.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우리 당이 바라는 인민을 위한 봄향기를 더욱 진하고 그윽하게 피워올리자!

군고구마향기와 더불어 신의주화장품공장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이런 맹세와 각오, 후더운 심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른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자기 단위, 자기 일터들에 이런 소중한 향기를 한가지라도 애써 마련할 때 우리의 생활은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의 전진은 또 얼마나 웅위할것인가.

본사기자 허명숙

어머니의 행복

모란봉구역 월향동 초급녀맹위원장 김진옥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겉모습에 따르는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도덕품모에 달려있다.》

밤은 깊어가고있었다. 은은한 달빛에 두 녀성의 그림자가 마당가에 비끼였다.

《무슨 일때문에 주저하느냐?》

어머니의 물음에 이번에도 딸은 대답이 없었다.

뜻밖에 부모를 잃은 자기를 키우느라 어제선, 김진옥부부가 바친 진정은 얼마였던가. 10여년세월 친자식들보다 더 마음을 쓰고 사랑을 기울여준 그들이였다. 그래서 늘 미안한 생각뿐인데 결혼상도 친딸보다 먼저 차려주겠다니 차마 대답이 나가지 않았던것이다. 뒤늦게야 이런 속생각을 안 김진옥동무는 서운한 심정을 금치 못하였다.

《우린 한번도 너를 남이라고 생각해본적이 없었는데…》

순간 문옥동무의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울컥 치밀어올랐다.

그는 김진옥동무의 품에 와락 안겨들었다.

《나도 어머니를… 고마와요.》

이렇게 되여 지난해 8월 두 청춘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였다.

그날따라 김진옥동무의 막내딸인 어은금동무에게는 10여년전의 일이 어제런듯 떠돌아졌다. 그날 은금이는 어머니에게 부모잃은 한학급의 문옥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딸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는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것이 아닌가. 그는 남달리 인정이 많은 어머니에게 센한 말을 했다고 곧 후회를 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뜻밖에도 은금이는 학교에서 어머니를 보게 되였다. 어머니가 교장선생님과 함께 교실출입문유리창앞에 서서 문옥이쪽을 바라볼 때에는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였다. 혹시 어머니가…

은금이는 이내 머리를 저었다. 녀맹위원장인 어머니는 몸시 바빴던것이다. 그래서 딸들의 치마주름도 아버지가 잡아주는 날이 더 많았다.

그런데 며칠후 어머니가 문옥이를 앞세우고 집에 들어섰다. 어머니는 얼굴에 만족한 웃음을 담고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부터는 이게 너의 집이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더욱 바쁘게 지냈다. 그가 언제 깨어나고 잠자리에 드는지 은금이는 알수 없었다. 언니인 어은정은 문옥이를 또 얼마나 위해주었던가. …

종하시절 어느 한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의 일도 떠올랐다. 그때 어머니는 집을 뛰쳐나간 문옥이를 찾아 여기저기를 뛰여다니고있었다. 하루는 환호실에 들었던 같은또래 녀학생이 은금이에게 물었다.

《넌 왜 아버지만 면회를 오고 어머니는 안 오니? 어머니가 안 계시니?》

매일같이 어머니를 은근히 기다리던 은금이는 분김에 하마트면 울번 하였다.

《우리 어머니는 무척 바빠.》

그는 이 말을 웨치다싶이 하였다. 딸이 입원했는데도 안 나타나는 어머니를 야속하게 여기고있었지만 그날은 현일인지 어머니를 옹호하고싶었다.

그래서 다시 큰소리로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처녀시절에 인민군대에서 중대장을 하셨어. 우리 어머니는 22살에 조선로동당원이 되였고 월향동의 인민반들이 3중충성의 7월11일붉은기인민반으로, 동이 충성의 7월11일붉은기동으로 된데는 녀맹위원장인 우리 어머니의 노력이 크게 깃들어있어. 우리 어머니는 동안의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친딸의 심정으로 돌봐주며 부모잃은 애까지 데려다 친자식처럼 키우고있어. 나에겐 그런 어머니가 있어!》

그것은 은금이의 진심이였다. …

시간이 흐를수록 결혼식장은 더욱 흥성이였다. 동네사람들은 물론 동의 일군들까지 찾아와 청춘남녀의 결혼을 축하해주었다.

김진옥동무는 어느새 아름이 벌게 안겨진 꽃송이에 묻혀버렸다. 그것은 그가 늘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고 위할줄 알아야 한다고 이르던 그 사회, 그 집단이 안겨주는 사랑이고 축복이였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누구나 다 이렇게 아름답다. 그래서 내 조국을 사랑과 정이 넘치는 대가정이라고 하는것이 아니랴.

본사기자 리경일

스스로 걷는 헌신의 길

천리마구역사회급양관리소 천리마특산물식당 종업원들

항구문화도시의 이른아침이다. 스르륵— 스르륵— 도로를 쓰는 비질소리가 가락맞게 들려온다. 도로우를 깐깐히 살펴보며 비질에 여념이 없는 항구구역도로시설관리소 도로관리원들을 천리마구역사회급양관리소 천리마특산물식당 책임자 오춘애동무와 종업원들이 찾아왔다. 그들의 손에는 더운물이 담긴 보온병들이 들려있다. 그들이 도로관리원들을 위해 지성을 바치기 시작한 때로부터 어느덧 10여년세월이 흘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동지적사랑과 의리로 굳게 결합되고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대가정이 되여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전 여름이였다. 그날 손님들에 대한 봉사로 바삐 돌아가던 오춘애동무의 눈길이 문득 창밖으로 향해졌다. 도로관리원들이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없이 식당앞의 길음길을 수리하고있는것을 보게 되였던것이다.

(얼마나 더울가?)

그는 시원한 오이랭국을 만들어가지고 도로관리원들을 찾아갔다. 오이랭국을 마시며 땀을 들이는 그들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오춘애동무가 작업반장 김경숙(당시)동무에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도로를 관리한다는것이 헐치 않겠다고 조용히 말했을 때였다. 도로폭을 이옥토록 바라보던 김경숙동무의 입에서 젖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길이야 강선의 갈림길과 잇닿아있고 태성할머니의 깨끗한 량심과 진정이 비껴있는 길이 아닙니까. 낮이나 밤이나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께 꽃주단은 펴드리지 못해도 길이야 왜 깨끗이 쓸어드리지 못하겠나요.》

오춘애동무의 눈시울은 불시에 달아올랐다. 평양과 잇닿아있는 그 길에 자기의 진정도 바치고싶었다.

오춘애동무는 아침마다 도로관리원들을 찾아갔다. 그들의 일손을 도우며 가정생활형편도 알아보고 생일이며 집주소, 식구수와 신발문수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수첩에 적어넣었다. 도로관리원들과 친숙해질수록 정범하고 순박한 녀성들이 안고 사는 고결한 삶의 지향에 깊이 감동되였다.

어느날 오춘애동무가 많은 량의 국수를 안고 식당에 들어섰다. 손님봉사에 쓰려는것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종업원들에게 오춘애동무가 말하였다.

《여름철에 땀흘리며 일하는 도로관리원들에게 시원한 랭면을 대접하면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나요.》

함께 일해오는 나날 오춘애동무의 됨됨을 잘 알고있던 종업원들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때부터 수십명의 도로관리원들은 오춘애동무와 종업원들의 성의가 깃든 접심상을 매일 마주하게 되였다.

몇해전 1월 어버이장군님께서 새로 건설된 남포유리병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날이였다.

남포시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이 기쁨을 금치 못하고있을 때 도로관리원들은 어버이장군님의 로고의 자욱이 새겨진 도로를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고있었다. 어버이장군님을 더 정갈하고 깨끗한 길우에 모시였더라면 하는 생각이 모두의 가슴을 쳤던것이다.

그들을 보는 오춘애동무와 종업원들의 눈굽은 젖어들었다. 태성할머니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거울로 삼고 어버이장군님 가시는 길에 비단필을 펴드리고싶은 마음으로 도로우에 깨끗한 량심을 묻어가는 도로관리원들이 더없이 돋보이였다.

도로관리원들을 위하는 그들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졌다. 도로관리원들의 생일때마다 푸짐한 생일상도 차려주고 기념품도 안겨주었다. 그들의 가정들에도 자주 찾아가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고있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적극 도와주었다. 누가 앓거나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말을 들으면 그달음으로 달려가군 하였다.

어느덧 그들은 한식솔, 한작업반 성원들이나 다름없이 되였다.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에 참가하였던 김경숙동무와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였던 세쌍둥이의 어머니인 김영희동무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을 안고 집보다 먼저 오춘애동무와 종업원들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놓고서도 도로관리원들과 그들사이의 따뜻한 정을 엿볼수 있다.

어느해 장마철 도로관리원들이 도로포장을 하고있을 때였다. 갑자기 소낙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하지만 도로관리원들은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 이때 오춘애동무와 종업원들이 방수포를 안고 달려왔다. 그들은 방수포를 높이 쳐들고 도로관리원들이 일하는 주위에 둘러섰다. 옷을 흠뻑 적시며 방수포를 쳐들고 서있는 그들의 등을 도로관리원들이 지마다 떠밀었다.

《저희들은 걱정말고 어서 마음놓고 일하세요.》

도로관리원들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부지런히 일손을 다그쳤다.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오춘애동무와 종업원들을 도와 방수포를 맞들어주었다. 오춘애동무의 곁에 서있던 사람이 문득 이렇게 말했다.

《도로관리원동무, 정말 수고합니다.》

순간 그의 마음은 불덩이를 안은듯 달아올랐다. 도로관리원이라는 그 부름이 어째서인지 가슴을 뻐근하게 해주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태성할머니처럼 살고싶은것이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이렇게 오춘애동무와 종업원들은 10여년세월을 도로관리원들과 뜻과 마음을 합쳐왔다. 도로관리원들에게는 자기들의 자그마한 속생각까지도 깊이 헤아리며 마음쓰는 그들이 어쩌보면 어머니처럼 여겨졌고 바쁜 일손을 한가지라도 더 돕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그들을 대할 때면 친딸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스스럼없이 우리 어머니, 우리 딸들이라고 사랑과 존경을 담아 불렀다.

어찌 도로관리원들뿐이랴.

우편통신원 리현숙동무의 사업과 생활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도와주고 항구구역안의 전쟁로병들을 친부모처럼 위해주는 소행은 또 얼마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것인가.

숭고한 목적과 리상을 내세우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삶이다. 이런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비록 생활에 어렵고 부족한것이 있어도 동지들사이에, 이웃들사이에 서로 돕고 진심으로 위해주며 사회주의화원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우리 인민이다.

오춘애동무와 종업원들은 오늘도 남모르는 헌신의 길을 묵묵히 걷고있다. 불같은 지향이 담긴 노래를 목메여 부르며 도로관리원들과 함께 평양으로 잇닿은 길을 굳건히 지켜간다.

이 한밤도 먼길 가실 원수님
생각하며
우리 마음 자욱자욱 간절히
따라섭니다
…

본사기자 조경철

증송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개천철도국 수송지휘처 일군들과 사령원들

개천철도국 수송지휘처 일군들과 사령원들은 기적소리를 무척 사랑한다.

기적소리가 힘있게 울릴수록 조국의 전진속도가 빨라진다는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그 마음을 안고 그들은 두줄기 궤도우에 증송의 기적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발동되면 혁명적열의와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게 되고 집단적혁신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 1월초 철도국에서 진행한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수송지휘처 처장 전성력동무는 지으기 어깨가 무거웠다.

올해 철도국앞에는 지난해보다 수십만의 물동을 더 수송해야 할 과제가 나섰다.

이것을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수송조직과 지휘를 얼마나 치밀하게 짜고드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었다. 하기에 철도국의 책임일군들도 회의를 결속하면서 수송지휘처 동무들의 임무가 무겁다고 거듭 말하였던것이다.

(인민경제계획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수행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더듬는 전성력동무의 눈앞에 불현듯 수송지휘처의 일군들과 사령원들의 모습이 한명한명 비껴들었다.

모두가 믿음이 가고 정이 죽드는 사람들이였다.

그들과 함께라면 접명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있을수 없다는 신심이 전성력동무의 온몸에 차넘쳤다.

수송지휘처의 일군들과 사령원들은 비록 나이와 성격, 취미는 달라도 서로 돕고 이끌며 집단적혁신의 한길을 걸어왔다.

지난해 12월 중순 년간계획을 일당겨 끝낸 처에서는 사회주의경쟁총화가 있었다.

경쟁에서 첫자리를 차지한 1작업반에 우승기가 수여되고 작업반원들에게 꽃다발도 안겨졌다. 자기들을 축하해주는 동무들에게 부처장 최인섭동무는 이런 말을 하였다.

《집단의 위훈이 있어 우리 작업반의 영예도 빛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집단을 떠나 우리 작업반의 오늘의 성과도 있을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이였다.

수송지휘처에서는 작업반들이 교대적으로 수십일씩 현장료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역들과 철길상태를 환히 꿰들고있어야 수송조직과 지휘를 보다 짜고들수 있었던것이다.

사령원들은 자기가 담당한 구간에 나가 어느 역에는 짐을 싣고부리는 화물장위치가 어디에 있고 선로들은 어떻게 되여있으며 어느 구간은 구배가 계속되고 곡선이 심하면서 구조물이 많기 때문에 견인을 얼마로 하면 된다는것 등을 수첩에 적어가지고 자기 사업에 구현하고있다.

사령원들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현지의 사령원들을 도와 역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켜 렬차를 빨리 떠나보내기 위한 작업조직을 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돌아와서는 다른 작업반원들에게 자기가 료해한 정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도 하였다.

언제인가 어느 한 대상기관에 필요한 물동을 긴급히 수송해야 할 과제가 나섰을 때였다. 자기 사업을 마친 사령원 최영민동무는 그 과제가 다른 교대의 일이라고 강건너 불보듯 할수 없었다.

화차에비를 조성하자면 어느 한 역에 머물러있는 화차의 물동을 한시바삐 부리워야 했다. 최영민동무는 스스로 그 일을 자기가 걸머졌다. 그가 역일군들과 함께 며칠은 걸려야 한다던 물동을 이튿동안에 다 부리우고 사령실에 돌아왔을 때 그의 정상은 말이 아니였다.

뒤늦게야 최영민동무가 현지에 나가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전성력동무가 뜨거운것을 삼키며 물었다.

《끼니를 먼저겠지?!》

그 말에 최영민동무는 웃으며 대답했다.

《필요한 물동수송을 제기일안에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는 그것만으로도 배가 부릅니다. 처장동지는 늘 우리에게 짐을 끌고 철길을 달리는 기관차처럼 나라의 짐을 어깨에 걸머질줄 알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영민동무만이 아닌 수송지휘처의 일군들과 사령원들모두가 집단을 위하여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말없이 스스로 찾아하였으며 거기에서 일하는 보람, 사는 보람을 찾았다.

이들은 붉은 줄이 들쑹날쑹한 경쟁도표를 바라지 않았다. 돌격할 때 산병선의 어느 한 모퉁이는 뒤에 처지고 어느 한 모퉁이만 앞서나간다면 그 전투는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운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였다.

한두개의 작업반이 아니라 수송지휘처의 모든 단위들에서 집단적혁신을 세차게 일으킬 때 만리마대진군속도는 그만큼 빨라지고 최후의 승리도 앞당겨지게 된다.

이런 숭고한 지향을 안고 부처장 박원철, 고정철동무를 비롯한 수송지휘처의 일군들과 사령원들은 몸이 불편한 동무가 있으면 자기 아픔처럼 여기고 극진히 위해주었고 집꾸리기에 필요한 자재도 모두가 달라붙어 마련해주었으며 다음교대를 위하여 유리한 수송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음썼다.

혁신적성과는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열정이 합쳐질 때 더 큰 성과로 이어질수 있다.

수송지휘처에서는 부처장, 사령장들이 사령원들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한명씩 맡아 그들의 기능을 높여주고있다. 자기 교대가 끝나도 그들의 수준을 높여주려고 무준히 노력한 일군들의 헌신에 의해 량철민, 한영민동무들만이 아닌 많은 동무들이 짧은 기간에 자기 몫을 당당히 수행할수 있는 혁신자들로 자라났다.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수력발전소들을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고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을 때마다 누구보다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수송지휘처 일군들과 사령원들이다.

그 무수한 창조물들을 보며 그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몇이랴. 하지만 그 귀중한 창조물들마다에 자기들의 고귀한 땀도 깃들어있다는 남다른 자부와 보람, 희열을 한껏 느끼는 그들이다.

지난 1월계획을 수행한 수송지휘처의 일군들과 사령원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신들메를 더 바싹 조여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집단적혁신을 일으켜가는 그들의 뜨거운 마음인양 두줄기 궤도우에 기적소리가 높이 울리고있다.

두줄기 궤도우에 높이 울리는 증송의 기적소리,

그것은 철사관철로 높뛰는 수송지휘처 일군들과 사령원들의 심장의 박동소리, 최후의 승리를 앞당겨가는 내 조국의 힘찬 전진가였다.

본사기자 김진옥

뜨거운 원군의 마음

지금으로부터 6년전 1월초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방문하시였다는 혁명활동보도에 접한 **경대탄광 후방부 로동자 경덕권동무와 그의 안해 하정현동무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그들은 피눈물속에서 새해를 맞이한 병사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여 어버이장군님의 불같은 사랑을 그대로 안으시고 부대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솟구치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이미전부터 진행하던 원군사업을 더 통이 크게 벌릴 결의가 그들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잡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전선길을 따라서는 심정으로 원군길을 억세게 걸었습니다.)

그들은 집짐승우리를 더 늘구었고 하나의 원호물자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 애썼다.

해마다 성의껏 마련한 많은 원호물자를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주는것이 그들에게는 더없는 락이였다.

어려운 때도 많았고 힘겨울 때도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조국의 무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의 길을 걸고게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그려보며 그 길을 걸고 또 걸었다.

초소의 군인들이 보내온 감사의 편지를 받아안을 때마다 그들은 원군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결심을 더욱 가다듬군 한다.

로농통신원 김봉일

시대적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해 지혜를 합쳐가고있다.
—조선작가동맹 황해남도위원회에서— 본사기자 찍음

긴장격화를 부채질하는 도발적망동

우리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으로 마련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는 전체 조선민족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미국이 조선반도의 현정세흐름을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대결과 긴장을 고취하기 위해 미쳐날뛰며 저들의 호전적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고있다.

이미 핵항공모함 《칼빈손》호를 일본에 끌어들이는것으로 본격적인 군사적긴장격화책동에 나선 미국은 이어 2척의 이지스구축함을 조선반도주변에 증파하는 등 우리를 겨냥한 선제타격무력들을 계속 증강배치하고있다. 또한 그 누구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밑에 우리 공화국을 작전대상으로 하는 신형레이다의 배치에 대해 떠들어대는가 하면 얼마전부터는 일본과 《미싸일방어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고 긴장국면을 조성하였다. 이런 속에 트럼프패거리들은 전문가나부랭이들을 내세워 《합동군사연습이 취소되어서는 안된다.》느니, 《합동군사연습을 축소하면 문제가 생길수 있다.》느니 하는 여론을 내돌려 남조선당국에 로골적인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우리 공화국에 대규모적인 싸이버공격을 가하기 위해 남조선과 일본 등지에 꾸려놓은 기지들의 존재에 대해 공개하면서 긴장격화를 부채질하고있다.

우리 민족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일대에서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재개하여 북남관계개선을 차단하고 반공화국압살공조를 더한층 강화하려는것이 미국의 흉심이다.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기 위해 미쳐날뛰는데서는 일본반동들도 미국에 짝지지 않는다.

알려진바와 같이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참가를 구실로 남조선을 행각한 일본수상 아베는 남조선당국과의 회담에서 주제넘게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라느니, 합동군사연습을 《예정대로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느니 하고 고아대면서 조선반도에서 어떻게 하나 핵전쟁연습의 총포성이 터지게 하려고 발광하였다. 한편 일본반동들은 저저마다 나서서 《대북제재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느니, 미국과의 공조밑에 《최대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느니 하는 속꼬부라진 소리들을 늘어놓고있다. 이것이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조장격화시켜 긴장완화의 흐름을 가로막고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강도적심보의 발로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훼방을 놓으면서 군사적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범죄적망동에 남조선의 괴뢰보수패당이 적극 추종해나서고있는것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패거리들은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재개》되여야 한다고 떠드는 상전들의 위협한 나발질에 맞장구를 치면서 긴장격화를 적극 부추기고있다. 이자들은 당국이 《정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고있다.》느니, 《위장평화공세에 놀아나고있다.》느니 하고 아무래기를 치면서 우리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를 악의에 차서 걸고드는가 하면 《제재압박의 강화》와 《핵폐기》랑발을 지독스럽게 불어대면서 좋게 발전하는 북남관계를 파괴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짓밟으며 모처럼 마련된 북과 남의 화해와 대화,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깨버리고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대결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는 보수패당의 망동은 남조선 각계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현실은 보수패거리들이야말로 한조각의 민족적량심도 없으며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민족의 운명도 서슴없이 짓밟는 추악한 매국역적의 무리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대화와 평화의 흐름에 배치되게 침략무력을 조선반도주변에 계속 끌어들이면서 군사적긴장을 부채질하고 이에 일본반동들과 괴뢰보수패당이 적극 동조해나서고있는것은 매우 위험하다. 정세를 악화시키려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발적망동으로 하여 지금의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이 억제되고 북남사이에 또다시 긴장이 격화된다면 그것은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남조선보수패당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반통일세력이 침략전쟁책동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서고있는것은 온 겨레가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밀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내외반통일세력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애국투쟁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리 성 호

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네팔, 나이제리아인사들 우리 나라 대사관 축하방문

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네팔, 나이제리아인사들이 1일과 8일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축하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네팔련합민족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총비서, 나이제리아부흥진보당 전국위원장 등이 꽃다발과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네팔련합민족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까말 브라싸드 차울라가 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인민군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께와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건설하신 김정일령도자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군건설업적은 조선인민뿐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나이제리아부흥진보당 전국위원장 구즈힘 은나지는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각하께서 창건하신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은 1950년대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는 전승신화를 창조하였다.

김정은원수각하의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는 최정예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으며 이것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진보적인민들에게 힘과 고무를 안겨주고있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는 승리의 진통을 계속 빛내여갈것이라고 확신한다.

민주꽁고 자주를 위한 주체사상연구소조 결성

민주꽁고 자주를 위한 주체사상연구소조 결성식이 8일 킨샤사에서 진행되였다.

민주꽁고공산당,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로동계시민협회, 민주꽁고-조선친선 및 현대성협회의 인사들과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앙드레 로테겔레 깔론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 76돐과 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민주꽁고에 또 하나의 주체사상연구소조가 결성된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주체사상신봉자대렬이 늘어나고 있는것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령도자께서 발전풍부화하신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주체사상이 구현되여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불러나고있는 나라가 다름아닌 조선이다.

조선을 여러차례 방문하면서 나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짓부시며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불굴의 모습을 직접 목격할수 있었다.

인류자주위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보급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는것은 우리의 응당한 본분이다.

결성식에서는 소조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빤데 므와빠 또또와 음빨라 깔론다 죠나탄이 선출되였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동족대결에 명줄을 건 보수패당의 발악적망동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우리 대표단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를 시비중상하며 대결소동을 일으키고있다.

홍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미국홀대와 북대표단의 과잉대접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앙탈을 부리면 끝에 넘어가 유엔대조선제재망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우를 범하고있다.》느니, 《북에 핵폐기만이 제재를 보장받을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느니 하며 야단쳤다.

《대한애국당》 공동대표 조원진을 두목으로 하는 보수렬거지들은 우리 대표단성원들이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공화국기발을 불태우며 대결광기를 부렸다.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보수언론들도 《남의 잔치상에 와서 주인행세를 하는 북》, 《대북제재완화와 한미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숨은 의도》 등의 악담을 퍼뜨리며 여론을 동족대결에로 몰아갔다.

보수패거리들의 이러한 망동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거세찬 흐름에 밀려나 과떨의 낭떠러지에 내몰리우고있는 시대오물들의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의 성공적개최가 담보되고 이번 대회가 남조선은 물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속에서 진행될수 있은것도 다 우리의 주동적인 참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것은 내외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의 성의와 노력을 모독하며 대결에 광분하는 보수패거리들이야말로 민족우에 저들의 정치적야욕을 먼저 놓는 인간쓰레기, 반역집단이다.

아마 보수패거리들에게는 우리 예술단의 노래소리와 《우리는 하나다.》는 응원단의 웨침소리 그리고 그에 화답하는 남녘인민들의 함성이 저들의 종말을 선고하는 조종으로 들릴것이다.

동족대결에 명줄을 건 홍준표와 조원진을 비롯한 보수패당에게는 날로 고조되는 북남화해와 통일기운이 악몽이고 죽음일수밖에 없다.

민족의 독버섯이고 통일의 암초인 남조선의 보수패당을 뿌리째 들어낼 때만이 평화와 통일을 앞당길수 있다는것은 온 겨레가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새겨안은 또 하나의 교훈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올림픽은 민족의 벗과 원쑤를 가르는 중요한 계기》라고 하면서 《미국, 일본과 함께 수구보수세력은 민족의 암》 등으로 강력히 비난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한줌도 못되는 보수추물들의 지랄발광때문에 북남사이의 화해와 대화분위기가 깨어지고 동족대결의 악순환이 재현될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유럽을 뒤덮는 신랭전의 검은구름

로미관계가 날로 복잡하게 번져지고있다.

미국의 언론들은 물론 고위정객들까지 나서서 반로씨야감정을 고취하고있다. 미국은 국제사회가 로씨야를 침략국가로 인식하게 만들기 위한 여론전에 광분하고있다. 미국무성은 로씨야에 심각한 안전위협이 존재하며 정세가 불의에 변할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려행을 삼가해야 할 나라》명단에 포함시켰다.

최근에는 미재무성이 210명의 로씨야대통령행정부, 정부, 련방평의회, 국가회의 등 지도부성원들과 주요회사 및 은행책임자들을 겨든 크레믈리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 자료는 미국이 로씨야의 일반인들뿐아니라 동력, 국방, 금융무분회사들과 특수기관들에 대한 새로운 제재결정을 채택하는데서 기초로 될수 있다고 한다.

로씨야를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이미 로씨야의 서부에 자리잡고있는 리뜨바와 라뜨비야, 에스또니아, 뽈스까에 미군주도의 나토군무대들이 배치되였다. 얼마전에는 보르두갈에서 미군이 주력이 되고 여기에 단마르크와 프랑스, 네데를란드, 에스빠냐의 무력이 합세하여 군사연습을 진행하였다. 로씨야에 대한 미군의 감시 및 정탐활동이 강화되고있다. 이 과정에 물리적충돌로 이어질수 있는 위태로운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고있다.

미국의 AP통신은 트럼프행정부가 로씨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핵무기개발을 추진중이라는 보도를 하였다. 실지 미국은 이번에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로씨야가 진행하고있는 핵무력현대화사업을 구실로 핵무기사용의 문턱을 낮추었으며 기본사용대상의 하나가 로씨야라는것을 쪼아박았다.

로씨야가 미국의 적대시책동에 강하게 맞서나가고있다.

로씨야는 미국의 행동을 히스테리적인 반로씨야광증으로 비난하며 필요한 대응조치들을 취하고있다. 나라의 서부지역을 강화하고 전략무력의 현대화와 군사훈련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나토에 박혀있는 깔이라고도 불리우는 깔리닌그라드주에 《이스깐데르》기동전술미싸일종합체를 배치하였다. 로씨야대통령공보관이 이에 대해 공개하고 자국령토에 이러저러한 무장장비와 병력을 배치하는것은 로씨야의 자주적권리라고 언명하였다.

지금 로씨야는 미국주도의 나토가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 전쟁준비를 하고있다고 보고 자국의 모든 무력이 있을수 있는 물리적충돌에 대처할수 있게 항시적인 동원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고있다.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가 호전적이고 반로씨야적이라고 규탄하고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로씨야와 미국은 위험계선으로 한치한치 마주 육박하고있다. 언제 어느 시각에 쌍방사이에 군사적충돌이 일어나고 그것이 전면전쟁으로 확대되겠는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국제사회는 유럽정세가 랭전시기보다 더 위험하게 번져질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분석가들은 나토무력이 전쟁개시를 기다리듯이 로씨야주변을 맴돌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로씨야를 자극하고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수 있는 요인으로 된다고 경종을 울리고있다. 유럽이 2차례의 세계대전의 발원지이라는 사실과 미국주도의 나토가 로씨야의 턱밑으로 바싹 접근하고있는 현실을 놓고볼 때 결코 지나친 억측이 아니다. 사태는 험악하게 번져지고있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정세를 극단에로 몰아가고있다.

이미전부터 미국은 잠재적적수로 여기고있는 로씨야를 제압하고 지역에서 패권을 쥐려고 책동하여왔다. 이 나라가 군사적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주변나라들에 위협으로 된다, 로씨야가 서유럽나라들을 해으로 타격하려 한다는 어마어마한 여론들을 내돌리며 로씨야공포증을 조성하여왔다. 동유럽나라들에는 로씨야의 위협을 막자면 나토에 들어와야 한다고 선전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동유럽나라들을 나토에 끌어들이고 이 나라들에 현대적인 무장장비들과 미군병력을 들이밀면서 로씨야와 군사적으로 대치시켜놓았다.

미국의 속심은 뻔보듯 뻔하다. 나토를 확대하여 로씨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것과 동시에 동유럽나라들까지 동원하여 집단적인 힘으로 이 나라를 압살하자는것이다. 로씨야가 강경자세로 나오자 미국은 형식상으로나마 표방하여오던 《동료관계》의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반로씨야책동에 더욱 로골적으로 매달리고있다. 로씨야를 전략무력의 우세로 제압하려들고있다. 로씨야의 크림통합,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등을 거들며 그것이 로씨야를 우호적인 협강으로 대하기 어렵게 만들고있다고 하면서 이 나라에 이래라저래라 샷대질을 해대고있다.

로미관계는 나날이 복잡해지고 유럽은 새로운 랭전의 문어구에 들어서고있다. 로미사이에 핵군비경쟁이 격화되고있다.

문제는 격화되고있는 로미관계가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는것이다. 랭전이 심화되여 물리적충돌이 일어나면 온 유럽지역이 전쟁의 불도가니속에 빠져들고 그것이 그대로 세계대전으로 번져질수 있다는 분석가들의 평가가 현실로 펼쳐질수 있다.

인류에게 참혹한 재난을 들씌우는 세계대전은 절대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념원이다. 여기에 역행하는자들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저들에게 도전해나설수 있는 잠재적적수들을 힘으로 누르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검은 속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본사기자 리 학 남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고병원성조류독감 발생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8일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였다.

시에 있는 한 닭목장에서 병든 닭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H5N6형조류독감비루스가 검출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야만적제도와 전쟁정책에 뿌리를 둔 범죄행위

얼마전 미국방성이 미군내에서 무례한 욕설과 폭력, 성범죄, 인종차별과 같은 학대행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미국방성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감행된 임의의 학대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만큼 미군내에서 학대행위들이 수수방관할수 없을 정도로 우심해지고있다. 미군의 기강은 완전히 풀어지고 정신심리는 이지러질대로 이지러졌다.

지난 7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군사학교들에서 최근 1년동안에 112건의 성폭력범죄가 감행되였다고 한다.

미국방성이 이렇게 망그러진 미군의 기강을 세워보겠다는것은 소가 웃다 꾸레미터질노릇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어떤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려면 우선 그 근원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미국방성의 정책작성자들은 이 초보적인 리치마저 모르는것이 분명하다.

사실 그 근원을 밝혀내는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군내에서 일어나고있는 모든 학대행위들이 미국사회의 축도이기 때문이다.

인종차별, 성폭행, 녀성차별, 총기류범죄 등 온갖 사회악은 악독강식의 생활방식이 판을 치는 미국의 고유한 속성의 발로이다. 파뒤에 부은 물이 발뒤꿈치로 흐른다고 대통령부터가 공공연히 이러한 현상들을 정당화하고 비호하는 정도이니 미군내의 현 상황이야말로 당연한 귀결이 아니겠는가.

미군내에서 일어나고있는 학대행위들은 결코 몇몇 개별적인 장교나 병사들에 의한 자연발생적이며 우발적인것이 아니다. 어릴때부터 폭력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자란 미군병사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으로 체질화된것이다. 또한 철저한 인간증오사상을 주입시키는 군복무기간 야수로 길들여진 결과라고 말할수 있다.

이라크에서 미군이 감행한 반인륜적인 만행들이 대표적인 증거로 된다. 지금도 미군은 자기의 점령지나 주둔지들마다에서 치떨리는 만행들을 저지르고있다. 녀성들을 성폭행하고 죽이는가 하면 심심풀이삼아 민간인들을 목표로 총을 쏘아대고있다.

지난해 8월 미군전투기들은 아프가니스탄 난가하르주에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타고가던 자동차를 무차별적으로 공습하여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16명의 정화적주민들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문제는 미군상층부가 병사들의 이러한 만행들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기는커녕 이를 규탄하는 세계의 량심을 우롱하며 비호두둔하고있는것이다.

미군내에서 학대사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는것은 미국이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 침략행위, 전쟁책동의 후과라고 할수 있다.

미국은 조선반도를 포함하여 세계곳곳에서 침략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리고있으며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여러 나라들에서 전쟁을 감행하고있다. 장기간의 침략전쟁연습과 전쟁과 병에 내몰리워 지칠대로 지치고 생사기로에 빠져든 미군병사들은 상당한 심리적압박감을 느끼고있다. 그들은 자살하고싶은 정도에까지 이른 저들의 불안한 심정에 대하여 토로하고있다. 미군내에서 각종 전투기술기재들의 사고가 련발하고있는것도 그와 적지 않게 관련되여있다.

미군내에서 만연하는 학대행위들은 침략전쟁에 시달리는 미군병사들의 불안하고 이지러진 정신심리의 폭발이다. 시시각각으로 조여드는 정신적압박감에 의해 그들은 리성을 잃고있으며 자기 동료들을 유성, 구타하고 서로 죽일내기를 하는것과 같은 범죄행위도 서슴없이 저지르고있는것이다.

미군내에서 감행되는 각종 범죄행위들이 미국의 야만적인 제도와 전쟁책동에 뿌리를 두고있는것만큼 그를 막는다는것은 언어도단이다.

하다면 어째서 미국방성이 이런 광대극을 펼치지 않으면 안되였는가 하는것이다.

목적을 두가지로 분석할수 있다.

첫째로는 여론을 기만하자는데 있다. 미군상층부가 미군내에서 일어나고있는 여러가지 학대행위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있다는 인상을 주어야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단순히 병사개인에 국한된것이라고 발뺌을 할수 있기때문이다.

둘째로는 만신창이 된 군기를 추세워야 세계지배야망을 실현할수 있다고 타산한데 있다.

그러나 미군내에서 저질러지는 각종 범죄행위들은 정책발표나 한두번의 엄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미국방성이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정책이라는것이 사회악이 란무하는 미국사회의 본질을 더욱 깊이 파헤친것으로 되였을뿐 대책안으로는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사회제도와 전쟁정책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학대행위문제를 절대로 수습할수 없을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손 소 연

일부 나라들에서의 파시즘부활책동을 비난

로씨야련방평의회 사회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신문 《네자비씨마야 가제따》에 글을 발표하여 유럽과 일부 이전 쏘련공화국들에서 우심해지고있는 파시즘부활책동을 비난하였다.

글은 파시즘과 나치즘이 영영 과거사로 되여야 한다는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하면서 오늘날 일부 나라들에서 파시즘과 싸운 로병들이 모욕과 박해를 당하며 나치즘과의 싸움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묘와 기념비들이 모독, 파괴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글은 나치즘이 영웅화되고 나치즘의 상징들이 전파되고있으며 반히틀러련합을 반대하여 싸웠거나 나치스분자들과 공모한 자들이 민족의 영웅들로 떠받들리우고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또한 력사를 수정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재검토하려는 시도들이 더 자주 나타나고있다고 하면서 그 목적은 파쑈도이췰란드를 타승한 붉은군대와 쏘련의 공적을 헐뜯으려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극도의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있다고 하면서 글은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결과와 유엔총회결의,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나치즘의 부활을 반대하기 위해 전세계인민들의 노력을 합칠것을 호소하였다.

프랑스의 그릇된 주장을 배격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15일 프랑스의 그릇된 주장을 배격하였다.

그는 프랑스대통령이 이란의 미싸일계획을 국제적인 감시하에 두어야 한다고 발언한것과 관련하여 그것은 지역에 불안정한 영향을 준다고 비난하였다.

프랑스의 주장은 이란의 방위계획에 대한 비현실적인 접근법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는 그 어느 나라도 이란의 미싸일계획에 제한조치를 부과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미싸일계획은 흥정거리가 아니라고 언명

이란군 공군사령관이 12일 자기 나라의 미싸일계획과 관련한 서방의 협상제안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이란의 방위력이 지역에서 그 어떤 위협으로 되지 않으며 국가보위, 민족의 안전과 련결된 중대한 문제이라고 하면서 미싸일계획은 흥정거리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이 나라 신문 《데일리 메일》은 이번 사건으로 영국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있다고 전하였다.

영국에서 지난해 가슴에만도 집없이 한지에서 새날을 맞은 사람들의 수는 매일 평균 4 750여명에 달하였다.

성폭력범죄 우심

미국의 로스안젤스시교외에서 11일 중년의 남성이 10대의 어린 소녀에게 성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이딸리아에서는 최근년간에 전체 녀성인구의 약 44%에 해당한 881만 6 000명의 녀성이 직장들에서 성희롱을 당한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일자리를 잃게 될가봐 그 사실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

살인범죄 성행

극도의 인간증오사상이 만연하는 일본사회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살인사건들이 끊기지 않고있다.

10일 도꾜도 아끼시마시에서 63살 난 녀성이 넥타이로 자기 딸의 목을 조여 숨지게 하였다.

살인자는 자기가 딸딸의 목을 넥타이로 조여 죽였다고 인정하였다. 그 집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딸 3명이 살고있었는데 당시 아버지는 외출한 상태였다고 한다.

한편 이날 나가노현에서는 69살 난 남성이 쇠망치로 자기 아들의 머리를 여러번 내리쳐 무참히 살해하였다.

더우기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는것은 제손으로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버젓이 경찰에 찾아가 《내가 아들을 죽였다.》고 실토하였다는것이다. 부모자식간에 서로 죽일내기를 하는 비인간적인 악행들이 매일과 같이 벌어지는 소름끼치는 참상은 썩을대로 썩은 일본사회의 진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경제 침체

미국에서 1월에 자동차부속품판매량이 그 전달에 비해 1.3% 줄어들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주요기계제품주문량이 그 전달에 비해 11.9% 감소하였다.

집없는 사람들의 불우한 처지

영국의 런던에 있는 국회의사당부근에서 14일 얼어죽은 사람의 시체가 발견되여 물의가 일어나고있다.

사망자는 집이 없어 의사당근처의 지하철도역에서 밤을 보내군 하던 류랑걸식자중의 한 사람이였다고 한다.

여러 나라에서 자연재해

눈사태

이딸리아의 알프스산지대에서 15일과 16일 눈사태가 일어났다. 그로 하여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폭풍피해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최근 폭풍이 불어닥쳐 피해가 났다.

폭풍으로 큰물과 흙사태가 발생하여 15일현재 4명이 목숨을 잃고 2 000명이 긴급대피하였다.

현지에서 구제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큰물

페바논의 전반지역에서 최근 무더기비로 큰물이 났다.

18일 이 나라 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큰물로 수도 바이루트에서 도로들이 물에 잠기고 북부지역에서는 농경지와 살림집, 상점들이 파손되였다.

또한 수리아피난민들의 림시거처지들이 침수되여 대피소동이 벌어졌다.

고산지대들에서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이 많이 내릴것이 예견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지진

미국 알라스카주의 아다크섬앞바다에서 15일 리히터척도로 5.2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북위 51.7336°, 서경 176.8422° 되는 곳에 있었다.

열대성폭풍

피지에서 최근 열대성폭풍으로 피해를 입었다.

14일 폭우를 동반한 열대성폭풍으로 30여채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통신이 두절되였다.

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잠마피해

모잠비끄의 북부와 중부지역에서 최근 장마로 피해를 입고있다.

14일 이 나라의 국가재해조정협회가 발한데 의하면 지난 13일동안에 전국적으로 번개, 강풍 등 재해로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불리한 기후현상으로 796세대의 3 925명이 각종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피해를 가시기 위한 구제조치가 취해지고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분쟁으로 인한 피해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되는 무장분쟁과 총돌로 많은 민간인사상자가 발생하고있다.

15일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이 나라에서 무장충돌로 3 428명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7 015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들중 어린이와 녀성이 각각 861명, 359명에 달하였다.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만행

이스라엘군이 17일 가자지대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또다시 감행하였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전투기와 땅크를 동원하여 가자지대에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함으로써 팔레스티나인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스라엘군의 만행은 팔레스티나인들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반파약투쟁

마로끄경찰당국이 14일 마라케슈에서 국제마약밀매조직과 련관되여있던 외국인마약밀수업자를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벨기에의 쏘피아교외에서 마약을 실어나르던 승용차가 단속되여 37.6kg의 헤로인과 코카인이 압수되고 4명의 범죄자가 억류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81030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